

容齋 李荇의 哀悼詩 연구

장진엽*

|| 차례 ||

- I. 머리말
- II. 이행의 애도시 개관
- III. 이행 애도시의 주된 내용
- IV. 이행 애도시의 의식 지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容齋 李荇의 한시를 읽는 하나의 경로로서 그의 哀悼詩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容齋集』에 수록된 이행의 애도는 모두 63題 101首로 파악된다. 이 시들은 대부분 挽詩이며, ‘~挽詞’, 또는 ‘哭~’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한 애도는 40편 정도이다.

먼저 이행 애도를 그 내용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士禍期의 원통한 죽음을 다룬 시들이다. 이 작품들에는 天道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조리한 죽음에 대한 강한 비탄이 담겨 있다. 또, 망자의 介潔한 성품을 부각하거나 사화 중의 체험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중종반정 이후 작품들 중 망자의 功績에 대한 칭송을 위주로 한 시들이다. 여기서 저자는 임금과 나라, 백성과 士林에게 그의 죽음이 어떤 상실을 가져왔는지를 부각하는 등 公的인 태도를 보인다. 또, 지인의 가족을 위한 만시에서는 고인의 덕행과 가문의 융성을 칭찬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셋째는 특별한 풍모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와 개인적 인연의 회고가 담긴 시이다. 저자와 교분이 깊었던 인물에 대하여 일화를 사용해 생생하게 그 풍모를 그려내고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진솔함이나 참신성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

다음으로 이행 애도시의 의식 지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하나는 개인적 비탄의 표출 양상으로, 특히 친우에 대한 애도시에서 확인되는 의식이다. 이행은 벗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자신의 적막감을 한탄하는 방식으로 벗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1503년에 죽은 金千齡에 대한 만시, 그리고 1520년 작인 「八月十八夜」의 기·승구에서 확인되는데, 장년기의 작품들에까지 반복, 변주되면서 이행 애도시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餘慶과 가업의 성취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고인의 덕으로 후손들이 은택을 입을 것이며 훌륭한 자제가 가업을 이을 것이라는 말로 망자를 위로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生死觀이지만, 이행 만시에서는 무상감을 극복하는 기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발상은 이행 애도시에 화평하고 온화한 미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갑자사화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이행의 애도시에 다른 시대의 작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 벗을 잃은 상실감과 적막감은 애도시뿐 아니라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관류하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다. 사화 이후 이행은 언제나 세상과 화해하고자 했으나 마음 깊은 곳의 상실감과 적막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 결국 백발로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자신을 거둬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행 애도시의 성취가 조선전기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士禍라는 현실적 맥락이 당대인의 문학 및 의식세계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섬세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容齋, 李荇, 哀悼詩, 挽詩, 挽詞, 갑자사화

1. 머리말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國朝의 시는 마땅히 容齋 李荇(1478-1535)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행 시의 풍격을 “沈厚和平, 澹雅純熟.”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오언고시를 극찬하였다. 또, 「八月十八夜」를 인용하고 이 시에 대해 “감개가 무한하니, 읽으면 서글퍼진다.”고 평했다.¹⁾ 허균의 이러한 평가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새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허균이 꼽은 용재의 대표작이 바로 벗을 잃은 상실감과 홀로 남은 고독함을 노래한 작품이라는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國朝詩刪』, 『箕雅』 등 시선집들에 수록된 이행의 대표작 가운데 「書仲說題畫屏詩後」, 「題挹翠軒遺稿後」, 「題天磨錄後」, 「追悼鄭淳夫」와 같은 시들도 죽은 벗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도를 담고 있다.

甲子士禍(1504년)는 이행의 생애 및 그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행 자신은 요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젊은 시절의 벗들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서 그리움의 정서는 더욱 애뜻하고 절실하다. 그렇다면 널리 알려진 몇몇 작품들 외에 벗들의 죽음을 다룬 그의 시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면모를 띠고 있을까. 이행은 中宗反正(1506년) 이후로 말년에 金安老의 탄핵으로 유배를 가기까지 대략 25년 동안 비교적 순탄한 관직 생활을 했다. 유배기와 반정 직후에 죽은 벗들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썼으며, 세월이 한참 흘러 <和朱文公南嶽倡酬集>(1531년)을 제작할 때에도 젊은 날의 벗에 대한 追悼詩를 썼다. 그 사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친지를 비롯하여

1) 許筠, 『惺叟詩話』. “我國詩, 當以李容齋爲第一. 沈厚和平, 澹雅純熟. 其五言古詩, 入杜出陳, 高古簡切, 有非筆舌所可讚揚. 吾平生所喜詠一絕: ‘平生交舊盡凋零, 白髮相看影與形. 正是高樓明月夜, 笛聲淒斷不堪聽.’ 無限感慨, 讀之愴然.”

가까운 벗들과 동료 관원, 조정의 대신과 지인의 가족을 위해 挽詩를 썼다. 본고는 이러한 작품들, 즉 『容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이행의 哀悼詩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0여 수나 되는 용재 시를 읽는 다양한 경로의 하나로서 애도시를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²⁾

哀悼詩는 죽은 이에 대한 弔喪과 追慕의 뜻을 담은 시를 가리킨다. 喪禮에 임해 제작하는 挽詩(또는 輓詩)나 挽詞가 애도에 해당하며,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창작한 追悼詩를 비롯하여 망자에 대한 애도의 취지로 쓴 시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³⁾ 悼亡詩, 哭子詩 등도 애도시의 한 유형이다.⁴⁾ 이행은 “~挽詞”, 또는 “哭~”라는 제목의 만시를 다수 창

2) 이행의 시문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 중에서는 이재숙, 「容齋 李荇의 漢詩 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행을 海東江西詩派로 분류한 기존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행이 杜甫를 비롯한 여러 시인을 배워 일가를 이룬 작가임을 보였다. 또, 시기별 작품을 통해 용재 시의 의식양상을 추적하였다. 특정한 유형의 시를 살펴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이창희, 「용재이행(容齋李荇)의 사행시고(使行詩攷)」, 『한국어문교육』 제1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86; 이창희, 「용재 이행의 제화시 소고」, 『어문논집』 38권 1호, 안암어문학회, 1998; 김기림, 「용재, 이행의 영사문학과 그 의의」, 『대동한문학』 제10집, 대동한문학회, 1998; 유암천, 「容齋 李荇의 詠物詩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제5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이행의 애도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애도시, 또는 만시에 대한 연구성과 역시 풍부하네,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다. 애도시 전반에 관해 논의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최재남, 「韓國 哀悼詩의 構成과 表現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안대희,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 조선 후기 만시의 예술성과 인간미-」, 『한국한시연구』 제3집, 한국한시학회, 1995 등이 있다.

3) 만시와 애도시를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만시를 애도시의 하위 범주로 본다. 그러나 이행의 애도시 작품은 대부분 만시이므로 본문에서 그의 애도시 전체를 만시, 또는 만사로 지칭한 곳도 있음을 밝혀둔다. 만시는 곧 만시를 뜻한다.

4) 한편 自挽詩는 실제 죽은 이를 대상으로 쓴 작품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애도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행은 자만시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

작했다. 또, 만시는 아니지만 내용상 애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도 몇 편 있다. 한편 최재남은 한국의 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 “유가적인 교의에 입각한 儀禮的, 또는 典禮的인 공식시”들을 제외하고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동기에서 씌어진 죽음의 시들, 즉 주로 육친의 죽음의 슬픔을 애도한 시들”을 일단 애도시로 명명한다고 하였다.⁵⁾ 그리고 애도시를 悼亡詩, 哭子詩, 哭兄弟詩, 悼朋詩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公的·私的으로 창작된 애도시 전체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공적 태도로 창작한 애도시라 해도 그 표현 방식의 문학성에 대해 충분히 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I장에서는 먼저 『용재집』에 수록된 이행 애도시의 목록을 제시하고, 작품의 수록현황 및 창작 경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 III장에서 이행 애도시의 주된 내용 및 성격을, IV장에서는 그의 애도시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의식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행의 시 세계에서 ‘죽음’과 ‘그리움’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는 또한 조선전기 애도시(만시)의 한 양상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다.

II. 이행의 애도시 개관

『용재집』에는 애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모두 63제 101수 수

해 별도로 논하지 않는다.

5) 최재남, 앞의 책, p.11.

록되어 있다. <표 1>은 이행의 애도시를 애도 대상 인물과 함께 제시한 목록이다. 대개 제목은 ‘~挽詞’, 또는 ‘哭~’로 되어 있다. 제목에 ‘挽’이나 ‘哭’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타인의 죽음에 임해서 지었거나 제목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창작 의도가 드러날 경우 목록에 포함시켰다. 죽은 벗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표출한 시는 애도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아 제외하였다.⁶⁾ 권7 <海島錄>에 수록된 「余自竄居海島…」 연작 10수 중 제1수부터 제7수까지 일곱 수가 죽은 벗들에 대한 추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역시 애도시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제1수는 鄭希良(1469-1502)의 『虛庵遺集』續集 권1 附錄에 「李容齋[荇]追悼詩【出燃藜抄容齋遺事】」라는 제목으로 다른 추도시 및 제문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이 시가 만시로 인식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행의 대표작의 하나인 「追悼鄭淳夫」 역시 이 시와 함께 『허암유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작품이 金淨의 작으로 잘못 나와 있다.⁷⁾ 그 외 「祭直卿墓」도 祭詞로 볼 수 있으므로 목록에 포함시켰다.

6) 「書仲說題畫屏詩後」, 「題挹翠軒遺稿後」, 「題天磨錄後」, 「過高靈龍潭村 偶記仲說天磨錄詩春陰欲雨鳥相語之句 悼歎之餘 分韻以成【七首】」, 「讀翠軒詩 用張湖南舊詩韻」, 「過沈百源栗亭」, 「過威平公墓【洪公允成】」, 「過幽谷野 望洪直卿舊居 痛楚之餘 遂成一絕 用幽谷驛壁上韻」, 「有懷止亭 用定王臺韻」, 「有懷權叔達 用奉懷定叟韻」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죽은 벗’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애도시와 통하는 면이 있지만, ‘애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그리움’을 표출하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애도시와는 그 성격이 구별되며, 의례적 성격이 강한 만시나 祭詞와도 거리가 있다.

7) 정희량이 사망한 1502년에 沖菴 金淨(1468-1521)은 17세에 불과했다. 또한 김정은 종종 때 朴祥과 함께 愼氏의 복위를 주창했다가 權敏手, 이행 등과 대립했으며, 조광조와 함께 대표적인 기묘사림의 일원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훗날이라도 정희량에 대한 추도시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이행의 애도시 목록

	권수	시체	제목	대상인물
1	권1 七言 絶句	七絶	哭君美 (4수)	洪彦邦(?-1528 전후)
2			哭金仁老【千齡】○八首	金千齡(1469-1503)
3			哭沈百源【二首】	沈克孝(?-1523)
4	권2 五言律	五律	宋領相【軼】挽詞 * 李隅, 『松齋續集』(권1)에 「松峯宋相國【軼】 輓」이라는 제목으로 수록 ⁸⁾	宋軼(1454-1520)
5			李同知【安世】夫人挽詞	李安世 妻
6			沈贊成母氏挽詞【二首】	沈贊成 母
7			金領相【詮】挽詞	金詮(1458-1523)
8			姜正郎先君挽詞【二首】	姜正郎 父
9			哭李應教【孝文字忠元】	李孝文
10			哭李參議【均】○代家君作(2수)	李均(1452-1501) * 李穡의 증손
11			閔觀察使【師騫】挽詞(2수)	閔師騫
12			朴判官母氏挽詞	朴判官 母
13			哭金僉正	金僉正
14			鄭參判【光世】母氏挽詞	鄭光世 母
15			平城府院君挽詞 * 『松齋續集』(권1)에 「平城府院君【朴元宗】 輓」이라는 제목으로 수록	朴元宗(1467-1510)
16			哭長妹氏	만누이(盧友良 妻)
17			韓司諫【效元】母氏挽詞	韓效元 母
18			大行王妃挽詞【五首】	章敬王后(1491-1515)
19			韓二相【效元】妻貞敬夫人挽詞	韓效元 妻
20			金監司【希壽】挽詞【二首】	金希壽(1457-1527)
21			趙留守【舜】挽詞	趙舜(1465-1527)
22			哭蘇元友【時爲南原府使】	蘇世良(1476-1528)
23			滿浦沈僉使【思遜】挽詞【二首】	沈思遜(1493-1528) * 沈貞의 아들
24			李參議【世貞】母氏挽詞	李世貞 母

25		黃長原君【孟獻】挽詞 *『松齋續集』(권1)에 「輓黃長原君叔度」라는 제목으로 수록.	
26		高判府事【荊山】挽詞	高荊山(1453-1528)
27		哭堂兄李監役【荏】	李荏
28		許監司【礪】挽詞	許礪(1471-1529)
29		閔大司成【壽千】挽詞	閔壽千(?-1530)
30		挽詞	?
31		貞顯王后挽詞【二首】 * 金克成(1474-1540), 『憂亭集』(권2)에 「貞顯王后挽章」이라는 제목으로 수록.=	貞顯王后 (1462-1530)
32		朴仲說母氏挽詞	朴闇 母
33		哭曹二相妹氏【二首】	둘째 누이(曹繼商 妻)
34		哭金子誠【克福】○二首	金克福(1472-1531)
35		沈應教【彥慶】母氏挽詞	沈彥慶 母
36		哭外兄柳子榮【仁貴】	柳仁貴(1463-1531)
37		李領府事【惟清】挽詞	李惟清(1459-1531)
38		李僉知【誠彥】妻氏挽詞	李誠彥(?-1534)
39		孝惠公主挽詞	孝惠公主(1511-1531)
40		哭伯兄嫂氏	伯兄嫂(李荅 妻)
41		許議政【琮】夫人挽詞	許琮 妻
42		金判書【克成】繼母挽詞	金克成 繼母
43		哭金承旨【未文】	金未文
44		李知事【自健】挽詞	李自健(1455-1524)
45		權右議政【鈞】挽詞【二首】 *『松齋續集』(권1)에 「權相國【鈞】輓【二首】」라는 제목으로 수록	權鈞(1464-1526)
46		成夫人挽詞	成夫人
47		崔同知【命昌】母氏挽詞	崔命昌 母
48		領相挽詞【三首】	金詮(1458-1523)으로 추정
49		黃判書【衡】挽詞	黃衡(1459-1520)
50	권3	七律 任判書【由謙】挽詞	任由謙(1456-1527)

51	七言律		丁同知【壽岡】挽詞	丁壽岡(1454-1527) * 부친 李宜茂와 同榜
52			領相挽詞【代家兄作】	金詮(1458-1523)으로 추정
53	권3 五言詩	五古	癸未月日 遣告于沈百源靈柩	沈克孝(?-1523)
54	권6 海島錄	五律	哭趙生【二首】	趙生(?-1506) * 咸安의 官奴
55			哭成和甫【孟溫】	成孟溫
56			哭李誠之【守誠】	李守誠(?-1506)
57	권7 海島錄	七絶	余自竄居海島 數與子眞直卿公碩諸公 相唱酬往復 自念三數年 忘形之交 天禍人殃 凋喪幾盡 在而不得見者 獨南士華權叔達而已 今因諸公唱酬之什 聯次爲語 悼故傷生 情亦自至 非曰詩乎云也【十首】 (제1수~7수) * 제1수가 『虛庵遺集』續集 권2 附錄에 「李容齋【荇】追悼詩【出燃藜抄容齋遺事】」라는 제목으로 수록.	鄭希良(1469-1502) 朴閑(1479-1504) 權達手(1469-1504) 金千齡(1469-1503) 李幼寧(1472-1504) 成重淹(1474-1504) 安善之(名은 미상)(?-1504)
58	권7 南遊錄	五律	哭姜主簿【孝貞 患耳聾 不出 二首】	姜孝貞(?-1510)
59			權牧使【輓】母氏挽詞【三首】	權輓 母
60	권7 滄澤錄	五律	哭內兄成應卿【名夢井 時爲忠清兵使】(2수)	成夢井(1471-1517)
61	권7 嶺南錄	七律	祭直卿墓 * 『松齋續集』(권1)에 「祭洪直卿【彦忠】墓」라는 제목으로 수록	洪彦忠(1473-1508)
62	권8 東槎錄	五絶	李永元 從余到義州 病死 詩以哀之	李永元(?-1521)
63	권8 和朱文公南嶽倡酬集	七絶	追悼鄭淳夫【用聞長老化去韻】 * 『虛庵遺集』續集 권2 附錄에 「金冲菴【淨】追悼詩【上同(*見東閣雜記)】」라는 제목으로 수록	鄭希良(1469-1502)

8) <표 1>에 있는 5편의 만시가 李堦(1469~1517)의 문집 『松齋集』續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우는 본관은 眞寶, 자는 明仲, 호는 松齋이다. 퇴계 이황의 숙부이기도 하다. 이황과 친분이 있어서 『용재집』에 이황이 이우에게 지어준 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이우의 유고 原集은 재화로 소실되었고 퇴계가 원집에서 手書해둔 시집 1권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1584년 외종손 吳濤가 간행한 것이 『松齋集』

목록에서 이행 만시의 대부분은 오언율시 형식을 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2 <五言律>은 127번째부터 마지막 172번째까지 46편의 만시를 연달아 수록하고 있다. (<표 1>의 4번부터 49번 작품) 만시의 경우에는 대상 인물의 몰년을 통해 그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권2 수록 만시 46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哭李應教【孝文 字忠元】」로 보인다. 이효문은 이행과 동방(1495년 급제)이며, 서른여덟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시에서 이행은 두 사람이 칠 년 동안 못 만났다가 동방으로 해후하였는데, 그가 응교에 제수되어 출근한 지 하루 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어 딱 하루 동안 어울릴 수 있었다고 했다. 급제 후 첫 벼슬이 응교였다는 말이니, 이 작품은 1495년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년이 분명한 인물을 기준으로 하면 李穡의 증손 李均(1452-1501)에 대한 만시(10번 「哭李參議【均】○代家君作」)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가장 늦은 시기 작품은 1531년에 창작된 34번 「哭金子誠【克愐】○二首」, 36번 「哭外兄柳子榮【仁貴】」, 37번 「李領府事【惟清】挽詞」, 39번 「孝惠公主挽詞」의 네 편이다. 또 1520년부터 1530년까지 지어진 작품이 15편인데, 그중에서도 1527년 이후 작품이 많다. 그 외 창작 시기가 확인되는 것은 2편으로, 1510년과 1515년이다. 즉, 권2의 만시들은 24세부터 54세 때까지의 작품들(오언율시에 해당)을 모두 거두어 수록한 것이며, 특히 저자가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냈던 시기부터 咸從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지은 작품이 많음을

의 초간본이다. 續集 및 附錄은 1900년에 12대손 李元魯가 간행한 것이다. 이원로는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詩·序·記 몇 편과 先賢遺錄에 실린 저자 관계 기사를 수집하여 별집을 엮었다고 한다. (오세옥, 「한국문집총간『송제집』 해제」, 1991 참조) 만약 이 시들이 후손가에 보존되어 있었다면 이우가 평소 친분이 있던 이행의 시를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이 이우의 작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위 목록에서 저자의 가족·친척에 대한 만시는 5편이다. 또, 지인의 가족(모친, 부친, 계모, 아내)에 대한 만시가 16편이다. 그리고 중종의 계비 章敬王后 尹氏, 성종의 계비 貞顯王后 尹氏,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의 딸 孝惠公主에 대한 만사가 있다. 자신과 지인의 가족, 궁중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만사가 21편이다.⁹⁾ 그 외 동료 및 선·후배 관료들에 대한 만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挽詞’가 儀禮的인 측면이 강한 시에 사용된 제목이라면 ‘哭~’은 저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만시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3편 작품 중에 ‘哭~’으로 명명한 작품은 19편인데, 그중 가족에 대한 만시를 제외하면 모두 13편이다.¹⁰⁾ 또, 제목에 ‘挽’이나 ‘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섯 편의 애도시(53, 57, 61, 62, 63) 역시 저자의 개인적 친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반면 ‘挽詞’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들의 애도 대상은 ‘哭’자 시의 대상 인물들에 비해 저자와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지인의 친지에 대한 만시이거나 조정의 중요한 인물, 또는 선배나 원로 관원들에 대한 만시가 여기에 속한다. 물론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의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행은 대상 인물의 공적을 따져 적절히 칭송하며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말하고, 또 자신과 의미 있는 인연이 있었다면 이를 시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남의 부모나 아내

9) 21편 가운데 46번 「成夫人挽詞」의 成夫人은 지인의 모친이나 아내인 듯한데 누군인지 확실치 않다. 30번 「挽詞」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만사이다.

10) <표 1>의 10번 「哭李參議【均】○代家君作」은 저자가 부친 李宜茂를 대신하여 쓴 것이므로, 망자가 저자와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

에 대한 만사는 대상 인물이 저자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¹¹⁾ 한편 제목이 ‘哭’이 아니라 ‘挽詞’라고 되어 있는데도 개인적 친분 및 자신의 비통함을 강조한 작품들도 있다. 이 작품들에 挽詞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사림의 기간이 길지 않거나 연배나 관품이 높았기 때문인 듯하다.

이행의 만사들 가운데서 사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고 있는 작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哭~’으로 된 시들과 만시 이외의 애도시들은 모두 여기에 속하며, ‘~挽詞’ 중에서도 그 내용상 개인적 인연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는 작품은 목록에 포함하였다.¹²⁾

〈표 2〉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된 애도시

	제목		제목
1	哭君美 (4수)	21	權右議政【鈞】挽詞【二首】
2	哭金仁老【千齡】○八首	22	丁同知【壽岡】挽詞
3	哭沈百源【二首】	23	領相挽詞【三首】
4	宋領相【軼】挽詞	24	黃判書【衡】挽詞
5	哭李應教【孝文 字忠元】	25	癸未月日 遣告于沈百源靈柩
6	哭李參議【均】○代家君作(2수)	26	哭趙生【二首】
7	哭金僉正	27	哭成和甫【孟溫】
8	哭長妹氏	28	哭李誠之【守誠】
9	金監司【希壽】挽詞【二首】	29	余自竄居海島(…)[十首] 제1수

11) 이런 작품들 가운데 知己였던 朴闇의 모친에 대한 만시(32번 「朴仲說母氏挽詞」)는 다른 작품들과는 그 내용이 구별된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 2절에서 언급한다.

12) ‘~挽詞’라는 제목의 시들 중 <표 2>의 목록에 포함된 작품들은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2수 이상의 연작시의 경우 한 수는 고인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 수는 자신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구성한 예들이 확인된다.

10	趙留守【舜】挽詞	30	余自竄居海島(…)[十首] 제2수
11	哭蘇元友【時爲南原府使】	31	余自竄居海島(…)[十首] 제3수
12	滿浦沈僉使【思遜】挽詞【二首】	32	余自竄居海島(…)[十首] 제4수
13	哭堂兄李監役【荏】	33	余自竄居海島(…)[十首] 제5수
14	閔大司成【壽千】挽詞	34	余自竄居海島(…)[十首] 제6수
15	哭曹二相妹氏【二首】	35	余自竄居海島(…)[十首] 제7수
16	哭金子誠【克幅】○二首	36	哭姜主簿【孝貞 患耳聾 不出 二首】
17	哭外兄柳子榮【仁貴】	37	哭內兄成應卿【名夢井 時爲忠清兵使】(2수)
18	哭伯兄嫂氏	38	祭直卿墓
19	哭金承旨【未文】	39	李永元 從余到義州 病死 詩以哀之
20	李知事【自健】挽詞	40	追悼鄭淳夫【用聞長老化去韻】

鄭希良, 朴間, 權達手, 金千齡, 李幼寧, 成重淹, 安善之는 이행의 친우들로서, 갑자사화 전후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김천령에 대한 만시 1편(<표 2>의 2번)이 남아 있는데 8수의 연작시이며, 다른 이들에 대한 만시는 없다. 이후 이행은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어 있던 시절(1506년) 벗들을 회고하며 10수의 연작시를 지었는데, 이 가운데 죽은 벗들을 애도한 제1수부터 제7수(29~35번)는 그들에 대한 뒤늦은 만시의 의미를 띤다. 洪彦忠은 이행과 同榜으로서, 역시 갑자사화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는데 이때 특히 교분이 깊었다. 중종반정으로 풀려났으나 1508년에 사망했다. 홍언충의 묘소는 경북 문경에 있는데, 이행은 1520년 證考使로 영남을 순유할 때 그의 무덤에 들러 시를 지었다.(38번) 「哭君美」(1번)는 홍언충의 형인 洪彦邦에 대한 만사이다.¹³⁾ 이행은 洪貴達의 아들인 彦昇·언충·언방 모두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시에서

13) 홍언방의 물년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시에서 갑자년으로부터 二紀가 지났다고 했으니 대략 1528년 즈음임을 알 수 있다.

형제 모두를 애도하고 있다. 언승 역시 사화 때에 거제도로 유배되어 이들과 어울렸다. 成孟溫(27번), 李守誠(28번)에 대한 만시는 권6 <海島錄>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1506년 이전이나 그 즈음에 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맹온은 成俊의 조카로, 연산군 때 부관참시를 당했다. 이들은 모두 젊은 시절의 벗들이며, 대개 연산군 치하에서 고초를 겪다 죽은 인물들이다. 이상 작품들의 창작 시기는 「哭君美」를 제외하면 1520년(43세) 이전이다.

<표 2>에서 가족·친척을 제외하고 1520년¹⁴⁾ 이후에 지은 만시는 13편으로 확인된다. 1523년에 죽한 沈克孝에 대해서는 두 편의 애도시(3, 25번)를 썼다. 23번 「領相挽詞」는 누구에 대한 만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시에서 자신이 그를 ‘白首’에 만났다 하였고 少長을 잊고 우정을 나누었으며 환로에서 窮通을 같이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기묘사화의 原從功臣으로 1520년에 영의정에 오른 金詮(1458-1523)에 대한 만사로 추정된다.¹⁵⁾ 黃衡은 1520년, 金希壽와 趙舜은 1527년, 蘇世良은 1528년, 閔壽千은 1530년, 金克幅은 1531년에 죽하였다. 황형에 대해서는 ‘同僚’라고 하였으니 관로에서 만난 것이다. 이들과의 교유가

14) 이행은 1506년 중종반정으로 목숨을 건진 후 곧바로 홍문관 교리로 부름을 받고 부응교에 전임되어 사가독서하게 되었다. 그러나 1507년 12월 부친상을 당해 사직하고, 1510년 삼년상을 마치고서야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11년 9월 다시 모친상을 당하였고, 1513년(36세)이 되어서야 안정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숙, 앞의 논문, pp.19-20 참조) <표 2>의 목록에서 창작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 가운데서 1511~19년에 지어진 시는 「哭內兄成應卿【名夢井 時爲忠淸兵使】」 한 편이다.

15) 이행이 고위관료로 있던 시기 영의정으로 사망한 인물은 김전과 남곤 두 사람뿐이다. 남곤은 이행의 젊은 시절부터의 벗이었으니 이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김전은 이행보다 20년 연상이며, 기묘사림과 대립했다는 점에서 이행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시를 쓸 당시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니 장년기 이후의 사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컨대 민천수에 대한 만사(14번)에서는 “만년에 다시 친교를 맺어 / 백발로 함께 즐거움 누리려 하였거늘.[晚年還托契, 白首擬同歡.]”이라는 구절이 있다. 李自健, 權鈞, 丁壽岡, 宋軼은 연배가 높은 선배 관원이며, 沈思遜은 친구의 아들이다.

가족이나 친척들에 대한 만시는 「哭長妹氏」, 「哭堂兄李監役【荏】」, 「哭曹二相妹氏【二首】」, 「哭外兄柳子榮【仁貴】」, 「哭伯兄嫂氏」의 다섯 편이다. 만누이와 둘째 누이가 모두 이행보다 먼저 죽어 만시를 썼고, 당형과 외형, 만형수에 대한 만시가 있다. 그 외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咸安에 유배되었을 때 자신을 잘 보살펴준 관노 趙生의 죽음을 애도한 오언율시 2수(26번), 그리고 원접사로 의주에 갈 때 자신을 따라왔다가 병사한 李永元을 애도한 시(39번)가 있다. 이상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쓴 애도시들은 의례적 측면이 강한 여타 만시들에 비해 대상 인물의 풍모가 구체적이며 비탄의 심정이 더욱 곡진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III장에서는 이행 애도시를 그 내용에 따라 세 유형의 작품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먼저 갑자사화 전후에 죽음을 맞은 벗들에 대한 애도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인물의 덕과 공적을 칭송한 작품들, 세 번째로 인물의 특별한 풍모와 개인적 인연의 회고를 담은 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이행의 애도시에 나타난 의식 지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개인적 감정으로서의 悲歎의 표출 양상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저자의 生死觀과 관련된 것이다. <표 1>의 작품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 논의를 진행한다.

III. 이행 애도시의 주된 내용

1. 士禍期の 원통한 죽음에 대한 애도

갑자사화를 전후한 시기 이행은 그 자신 고문과 유배 등으로 극심한 시련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벗들의 연이은 죽음을 목도하며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다. 이들은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죽기도 했고 유배지에서 병사하기도 했다. 부관참시를 당한 이도 있었다. 이행이나 남곤과 같이 살아남은 이들도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례 거행이 어려웠을 것이며, 따라서 만사가 제작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이행은 거제도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1506년 10수의 연작시를 지어 벗들을 회고했다. 詩題에서 작품의 창작 동기를 길게 설명했으니, “내가 찬축되어 섬에 살면서 자주 자진, 직경, 공석과 시를 주고받았다. 생각해 보니 수삼 년 동안 망형의 교분을 맺은 벗들이 하늘과 인간의 양화로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살아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는 남사화와 권숙달이 있을 뿐이다. 이제 여러 공들이 창수한 시편들에 따라 차례대로 차운하여 시를 지어 죽은 이를 애도하고 살아남은 이를 가슴 아파하였으니, 정이 스스로 이른 것이지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시제에서 밝힌 창작의 의도, 즉 “죽은 자를 애도하고 살아남은 자를 가슴 아파한다[悼故傷生]”의 ‘悼故’에 해당하는 작품이 제1수부터 7수인데, 순서대로 정희량, 박은, 권달수, 김천령, 이유녕, 성중엄, 안선지에 대한 애도시이다. 제8수부터 10수까지는 ‘傷生’의 시인데, 南袞, 權敏手, 그리고 작가 자신의 처지를 읊었다. 정이 스스로 이르러서 말을 이른 것이지 彫琢을 거쳐 제대로 쓴 시가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 거친 작

품이라는 뜻의 겸사로 볼 수도 있으나, 깊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시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중 몇 수를 들어본다. 먼저 제1수이다.

칭찬과 비방 어지러이 수많은 입에 오르내리는데	毀譽紛紛萬口騰
이 사람 마음은 책상 모서리 만지는 것 아니었지.	此公心地不摸稜
초강 어느 곳에서 남긴 패옥을 찾을꼬	楚江何處尋遺佩
오색 끈으로 묶은 밥통을 던지고 싶구나.	願寄纏筒五彩繩 ¹⁶⁾

제1수는 정희량을 추도한 것이다. 정희량은 1495년(연산군1)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 검열로 관직을 시작했다. 재직 초에 水陸齋 거행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갔다 왔고,¹⁷⁾ 1498년 무오사화에 연좌되어 의주로 유배되었다. 1500년 김해로 이배되었다가 1501년 해배되었다. 그해 모친상을 당해 시묘살이 중에 산책을 나갔다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행의 위 시의 自註에서 정희량이 임술년(1502) 5월 5일 강물에 투신했다고 하였다.¹⁸⁾ 기구와 승구는 정희량의 평소 행적이다. 분명하고 강직한 언행은 칭송과 비난을 동시에 불러왔다고 하였다. ‘摸稜’이란 책상 모서리를 만진다는 것으로, 책임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뜻한다. 어지러운 시기, 정희량이 주

16) 李荇, 『容齋集』 卷7, <海島錄>, 「余自竄居海島, 數與子眞直卿公頃諸公, 相唱酬往復. 自念三數年, 忘形之交, 天禍人殃, 凋喪幾盡, 在而不得見者, 獨南士華權叔達而已. 今因諸公唱酬之什, 聯次爲語, 悼故傷生, 情亦自至, 非曰詩乎云也.」. 『용재집』 원문은 《한국문집총간》 수록본(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이행의 작품은 저자명과 책명은 생략하고 권수와 편차, 제목만 표시한다.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 제공 『容齋集』(이상하 역)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거나 이를 참조하여 다시 번역한 것이다.

17) 한희숙, 「연산군대 虛庵 鄭希良의 現實認識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제22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p.191.

18) “鄭淳夫, 壬戌五月五日, 自沈江而歿.”

변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언제나 분명한 태도로 시사를 논단했다는 것이 기구와 승구의 뜻이다. 강직한 성품이 시대에 용납되지 않아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은 굴원과 똑같다. 투신한 날짜 역시 5월 5일 단옷날이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강을 楚江이라 하였고, 강물에 제삿밥을 던져 그 혼을 위로하겠다고 한 것이다.¹⁹⁾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직한 성품 때문이고, 그 죽음은 굴원과 마찬가지로 ‘원통한 죽음’이다. 강물은 그를 흔적도 없이 집어삼켰고, 남은 이들은 속절없이 젓밥을 던지며 그를 애도할 뿐이다.

이 시는 이행이 1531년에 쓴 또 한 편의 추도시와 비교해 볼 만하다. 권8 <和朱文公南嶽倡酬集>에 수록된 다음 시는 여러 시선집과 시화에 실린 이행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허암거사 참된 지경을 찾아 떠나니	虛庵居士去尋眞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사 보지 않게 되었네.	不見悠悠世事新
상수에 넋 있어 응당 함께 위로하리니	湘水有魂應共弔
인간 세상에 몸 감출 만한 곳 없었구려.	人間無地可藏身 ²⁰⁾

이 시에서 정희량의 죽음은 ‘去尋眞’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의 호인 ‘虛庵居士’를 그대로 시어로 써서 강건한 미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虛庵’이라는 호의 뜻이 ‘尋眞’이라는 행위와 어울린다. 그가 죽은 지 30년, 연산군이 물러나고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塵世임에는 변함이 없다. 허암거사는 이미 참된 세계로 떠나갔으니 이제는 편안하고 자유로울

19) 蘇軾의 「和黃魯直食筍次韻」에서 “그래도 삼려대부에게 젓밥 올릴 수 있으니 / 밥통을 오색실로 동여맸구나.[尚可餉三閭, 飯筒纏五采.]”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20) 卷8, <和朱文公南嶽倡酬集>, 「追悼鄭淳夫[用聞長老化去韻]」.

것이다. 그는 다들 취한 세상에서 홀로 깨어있어서 제 몸 둘 곳이 없었다. 湘水에는 굴원의 넋이 있으니 이런 그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앞의 애도시와 비교해 보면 좀 더 넉넉해진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앞 시에서 시대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강직함으로 인해 원통하게 죽은 넋을 슬퍼하고 있다면, 이 시에서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고결하고 깨끗한 성품으로 인해 天真으로 돌아간 것으로 묘사하였다. 또, 앞의 시가 저자의 비탄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이 시는 망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성격이 짙다.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도 벼슬 그리워하는 마음이 두터운데, 처절한 슬픔이 가라앉은 뒤에 벼슬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차분히 되새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같은 편의 제3수와 제6수이다.

한길에 비긴 칼날로 홀로 나아갔나니	橫衢白刃獨能前
하늘이 요기를 보내 해 주변을 가렸다네.	天遣妖氛翳日邊
한밤 꿈속의 넋 옛날 모습 그대로니	半夜夢魂如夙昔
몇 줄기 맑은 눈물이 찬 이불을 적시네.(제3수)	數行清淚濕寒氈

서남쪽에서 세월 보내 초췌해지고	憔悴西南歲月重
모진 풍상에 검은 수염 죄다 변했지.	風霜變盡紫髯茸
죽산 길에서 창황히 마주쳤는데	竹山路上蒼黃面
매서운 불길에 백 길 솔이 끝내 꺾어버렸네.(제6수)	烈火終摧百丈松

제3수는 권달수를 추모한 것이다. 自註에 그 사연이 적혀 있다. 갑자년 이행과 권달수가 함께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던 때, 하루는 권달수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해 아래 흰 기운이 뻗쳐 있는 것이 보이는지 물었다. 이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권달수는 누군가가 죽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하였고, 그해에 화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행은 또 근래 며칠 밤을 꿈에서 그를 보았는데 생시의 모습과 같았다고 하였다.²¹⁾ 권달수가 이때 자신이 주모자라고 강변하여 처형을 당하고, 이행은 죄가 경감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보았다는 흰 기운을 이행은 기구에서 ‘흰 칼날[白刃]’로 형상화했다. ‘獨能前’은 홀로 용감히 죽었다는 뜻이다. 해 아래 흰 기운이란 곧 임금이 내린 흰 칼날이며, 해 주변을 가린 ‘요사한 기운[妖氛]’은 자신들을 참소한 세력을 가리킨다. 여전히 유배 중이라 앞날이 밝지 않은 지금, 홀로 죽음으로 나아간 벗의 얼굴이 꿈에 자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죽은 벗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서 자신도 곧 그를 따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차가운 이불을 적시는 몇 줄기의 눈물이 그려내는 심상이 처연하고도 맑다.

제6수 역시 창황한 속에서 겪었던 일을 그대로 시화하고 있다. 자주를 보면 무오사화로 인해 의주로 귀양 가 있던 성중엄이 경신년 여름 하동으로 배소를 옮겼고 갑자년 겨울에 화를 당하였다고 한다. 갑자년 6월 이행은 포박되어 한양의 감옥으로 가던 중에 곤장을 맞고 배소로 돌아가는 그를 竹山 길에서 만났다. 모습이 너무 초췌하여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말을 세우고 소리 질러 부르고서야 서로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였다고 했다.²²⁾ 이날이 바로 이생에서의

21) “權通之, 甲子冬, 與余係獄, 係後至, 一日, 極余手指天曰: ‘日下有白氣亘空, 子亦見之乎?’ 余曰: ‘未也.’ 通之仰天良久曰: ‘噫! 其死矣, 正爲吾也.’ 是年十二月初一日, 被禍. 近夜連夢通之如平生, 故并及之.”

22) “成季文, 戊午秋, 以史事謫義州. 庚申夏, 遷河東, 甲子冬, 遇禍于遷所. 余於甲子六月, 被繫詣京獄, 遇季文於竹山路中, 蓋以事, 又追杖還配也. 瘁形羸面, 相目不之識, 因叱馬作聲, 方認爲季文也. 揮淚噓息而別.”

마지막 만남이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모진 고통 속에 초체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읊고, 전구에서 죽산 길에서의 짧은 만남을 언급했다. 결국에서는 百丈松이 불길에 꺾였다고 하여 성중엄이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음을 말했다. 감정 묘사 없이 사실만으로 애도시를 구성했는데, 절박한 상황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비탄의 심회가 절로 느껴진다.

이러한 작품들은 시인이 처했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계기로 창작된 것들이다. 사화로 인해 많은 벗들을 잃었으며 그 자신도 생사를 오가는 고초를 겪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창작된 시들이므로 때로는 그 상황의 서술만으로도 깊은 비탄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평온한 죽음을 맞지 못하였고, 외부의 ‘불의한’ 세력에 의해 원통한 죽음을 맞은 것으로 그려진다. 위 작품들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죽음에 이른 인물들의 강직하고 介潔한 품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인물들 외에 김천령에 대해서도 “맑기는 가을 하늘에 흰 이슬 무성한 듯 / 굳세기는 지주가 거센 물결 막아선 듯[澹若秋空白露溥, 剛如支柱鎮奔瀾]”(제4수)이라고 하며 그 인품을 칭송하였다. 김천령은 사화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대간으로서 강직한 언사를 펼쳐 죄를 입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의 형을 받았다.²³⁾ 이행이 동료들의 강직함을 부각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희생’된 것이 아니라 군자의

23) 김천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시가 남아 있다.(권1, 『哭金仁老【千齡】○八首』) 이행이 아직 유배 가기 전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만시가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의 어조는 차분한 편인데, 김천령이 사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사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만시에도 그의 강직한 성품에 대한 칭송이 담겨 있다. “심문받을 때 그대가 부끄럽지 않은 것 홀로 알았으니 / 좋은 금은 불길 거셀수록 더욱 강해진다네.[對獄獨知君不愧, 精金經火信逾剛.]”(제3수), “거리낌 없는 충언으로 조정을 뒤흔드니 / 지나던 사람들조차도 어사의 위엄을 알았었지.[忠言諤諤動天扉, 行路猶知御史威.]”(제5수)라고 한 것들이다.

본분을 다한 결과 의연히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편 권6 <海島錄>에는 성맹온에 대한 만시가 수록되어 있다. 『연산군일기』 연산군 12년(1506) 7월 1일 기사에는 성맹온을 부관참시하라는 전교가 실려 있다. 그러면 그가 죽은 시점은 그 이전일 것이다. 성맹온을 곡한 다음의 시는 이행의 만시 가운데 비탄의 심정이 가장 직설적으로 표출된 작품의 하나이다.

끝나버렸구나, 성화보여.	已矣成和甫
우환을 같이한 의리 진실로 돈독하였건만.	同憂義固敦
예부터 누군들 죽지 않으랴만	古來誰不死
지금 이 경우는 가장 원통하도다.	今者最爲冤
장례에 명정도 쓰지 않겠다 하고	不用銘旌識
어찌 천도를 논할 것인가라고 말했지.	寧將天道論
백발로 널을 부여잡고 곡하노니	白頭扶柩哭
혹시 혼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는지.	儻有未歸魂

성맹온이 죽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수련에서는 벗을 잃은 화자의 깊은 탄식을, 함련에서는 그 죽음의 원통함을 직접 말했다. 경련의 자주에서 “군이 유언하기를 ‘명정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였고, 임종 시에는 한탄하며 ‘인생이 이에 이르렀으니 천도를 어찌 논하리오’라고 하였다.”²⁴⁾고 밝혀 두었다. 망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미련에서는 관을 붙들고 곡을 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아직 녀이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르

24) “君遺言：‘勿設名旌。’臨歿，歎曰：‘人生到此，天道寧論。’”

니 마지막까지 불러보는 것이다. 수련과 함련에서 비통함을 직서하여 급박하게 시상을 전개시키고, 경련에서 임종 시의 유언을 회고하며 호흡을 잠시 고른 후 미련에서 차마 보낼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임종 직후에 쓴 만시인 탓에 앞에서 인용한 연작 애도시에 비해 감정의 파고가 높다.²⁵⁾

사화기, 즉 이행 생애에서 유배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제작한 애도시들은 그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기에 짙은 비감이 드리워져 있다. 물론 태평한 시기라고 해서 그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남은 자의 슬픔인 것이지 죽음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화기의 죽음은 “하늘에 어찌 물을 수 있으랴 / 창해에 나루터가 없구나.[旻天何可問, 滄海更無津.]”²⁶⁾라는 한탄이 나오게 하는, 天道를 의심하게 만드는 급작스러운 재앙이었다. 그리하여 죽음에 즉하여 쓴 만시에는 비통한 심회를 직서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또, 여전히 유배 중이던 시기에 쓴 애도시들에서는 망자의 개결한 성품을 강조하거나 겪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탄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같은 대상에 대한 애도시지만 30년이 흐른 뒤에는 차분한 어조로 그 죽음의 의미를 곱씹고 좀 더 넉넉한 시선으로 그 넋을 위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25) 같은 권6에 수록된 이수성에 대한 만사도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다룬 것이다. 오랜 벗은 아니지만 고난을 같이 겪은 동료이고, 그의 죽음의 의미를 하늘에 묻고자 하나 길이 없다고 했다. 역시 사화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에 대한 만시이다. 「哭李誠之【守誠】」. “艱難情自別, 不必舊相親. 肺腑分崩日, 雷霆震蕩辰. 旻天何可問, 滄海更無津. 萬古泉臺恨, 終年未見春.”

26) 卷6, <海島錄>, 「哭李誠之【守誠】」.

2. 功德의 칭송과 公的 차원의 애도

기본적으로 만시는 挽章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이다. 가족과 친지, 가까운 벗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시를 짓기도 하지만,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임에도 망자 가족의 청탁을 받아 만시를 써주기도 한다. 또, 조정의 대신이나 원로 학자에 대해서도 의뢰를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만시를 쓸 수 있다. 동료 관원에 대해서도 의리와 예에 따라 만시를 써준다. 최재남은 애도시의 유형으로 悼亡詩, 哭子詩, 哭兄弟詩, 悼朋詩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애도시의 구성요소인 悲嘆, 鎮魂, 稱揚의 비중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칭양의 요소가 중심이 되는 작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도봉시인데, 그 이유에 대해 “도봉시에서 칭양의 진술이 두드러지는 것은 슬픔을 말하는 절실함보다는 애도 대상이나 애도 대상의 유족을 향한 혹은 사회를 향한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²⁷⁾이라고 지적하였다.

도봉시 중에는 가까운 벗에 대한 애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자의 깊은 비탄의 심정을 드러낸 작품들도 적지 않다. 앞 절에서 살펴본 이행의 작품들 역시 도봉시에 속하면서 비탄의 감정이 위주가 되는 작품들이다. 또, 개인적 관계에서 창작된 작품들에도 역시 상대의 인품에 대한 칭송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덕이 있는 사람을 잃었기에 슬픔의 크기가 더 증폭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知己였다면 개인적인 상실감은 더 커진다. 한편 자신과 그리 가깝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만시에서는 상대적으로 公的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행의 만시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인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공

27) 최재남, 앞의 책, pp.40-41.

적과 인품을 칭송하면서 그의 죽음이 국가와 사회, 또는 상대의 가문에 어떠한 손실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시인 자신과의 관계보다는 가문과 사회에서의 그 사람의 위상을 말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칭송과 함께 애도자의 개인적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다.

상대에 대한 칭송이 위주가 된 애도시는 망자의 功績과 그 죽음의 의미를 적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다음은 『용재집』 권2에 수록된 朴元宗(1467-1510)에 대한 만시이다.

나라가 위태롭던 시절	國在顛危日
대인의 힘으로 부지하였지.	扶持待大人
마음 씀은 마치 이윤과 같고	心如伊尹可
공적은 거의 광광과 가까우리.	功豈霍光親
하늘에선 중태성이 막 갈라졌는데	天室台初坼
운대의 초상화는 아직도 새롭구나.	雲臺畫尙新
법도 있는 모습 다시 뵈을 길 없으니	典刑無復見
이 백성을 위하여 통곡하노라.	痛哭爲生民 ²⁸⁾

박원종은 성종대 출신한 무신이다. 연산군대에도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연산군의 눈에 나서 몇 차례 좌천되었고, 成希顔, 柳順汀 등과 함께 반정을 모의하여 중종을 옹립하였다. 그 공로로 1등 靖國功臣으로서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1507년에는 李顥의 옥사를 다스린 공로로 定難功臣 1등에 올랐으며, 1509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平城府院君에 봉해졌으나 이해 사망하였다. 이행의 만시는 공신으로서의 박원종의 위상을 간결하게 그려내고 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28) 卷2, 「平城府院君挽詞」.

위태롭던 때 그의 힘으로 나라가 부지되었다. 정승을 지냈던 이력은 이윤의 마음으로, 무신으로서 활약한 것은 광광의 사적에 빚대었다. 쫓의 명재상 張華가 죽기 얼마 전에 中台星이 갈라지는 변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즉, 중태성의 변고는 조정의 중신이 죽는 것을 뜻한다. 또, 박원종이 공신이었기에 운대의 초상화를 언급하였다. 함련과 경련은 각각 上句에서 정승의 사업을, 下句에서 장수의 공훈을 이야기하여 두 연이 긴밀히 호응하고 있다. 이어서 비탄의 뜻으로 마무리하였는데, 그의 죽음으로 본보기를 잃었으니 자신의 통곡은 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적절한 전거의 사용과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망자의 공적과 그 죽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행의 만시에서는 망자의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부각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는데, 상대의 功業을 칭송하는 시에서 이러한 표현이 두드러진다. “성상께서는 거울 잃었다 슬퍼하시고 / 동궁계선 스승을 잃었다고 통곡한다네.[當宇悲亡鑑, 東宮哭失師.]”²⁹⁾, “원로 한 분을 끝내 남겨두기 어려우니 / 공평치 못한 창천이 원망스럽네.[一老終難愁, 蒼天怨不平.]”³⁰⁾, “다시 사문을 위해 통곡하노니 / 떠다니는 먼지가 목지를 덮었구나.[更爲斯文慟, 遊塵鎖墨池.]”³¹⁾, “이 사람 아니라면 누굴 위해 통곡하라 / 예로부터 인재 얻기 어려움을 한탄했다네.[非斯誰爲慟, 自古惜才難.]”³²⁾, “원로들이 다 떠나니 지금 얼마나 있나 / 백발로 눈물 흘리는 건 우리 유자들 위해서라네.[耆舊凋零今有幾, 白頭揮涕爲吾儒.]”³³⁾ 등의 시구를 들 수 있다. 시인 자신의 개

29) 卷2, 「金領相【詮】挽詞」.

30) 卷2, 「高判府事【荊山】挽詞」.

31) 卷2, 「金監司【希壽】挽詞【二首】」.

32) 卷2, 「閔大司成【壽千】挽詞」.

인적 슬픔이 아니라 임금과 나라, 斯文과 儒林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박원종의 만사에서 백성을 위해 통곡한다고 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작품은 공적을 위주로 하되, 조금 다른 말하기 방식을 보여준다. 沈思遜에 대한 만시 2수 중 제1수이다.

일에 임해선 성인도 조심하는데	臨事聖猶懼
그대는 어찌하여 몸 가벼이 했는가.	君胡輕厥身
재주 많은 몸 스스로 아꼈어야지	多才須自惜
오랑캐를 어찌 가까이할 수 있으리.	異類豈宜親
국가에 아무런 근심이 없었는데	國在無虞日
하늘이 바야흐로 변괴를 보였구나.	天方示變辰
사사로운 마음으로 곡할 겨를 있으랴	吾私何暇哭
침통함이 대궐에 절박하거늘.	沈痛迫楓宸 ³⁴⁾

심사손은 이행의 친우였던 沈貞의 아들이다. 심사손은 1517년 문과에 급제하여 吏官으로 일했으며, 1523년 비변사 낭관으로 있으면서 서북면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고 이후 병조정랑이 되어 군무에 숙달했다는 인정을 받아 중요한 일을 전담하여 처리했다고 한다. 1528년 서북 야인들의 준동이 심해졌는데, 이때 滿浦鎭僉節制使로서 방어에 주력하다 야인의 기습으로 살해되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인데, 그것을 칭송하기보다는 그가 몸을 아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 일을 나무랐다. 그러나 사사로운 친분으로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신을 잃은 나라를 위해 슬퍼한다고 하였다. 제2수에서는 두 집안의 친분을 말

33) 卷3, 「任判書【由謙】挽詞」.

34) 卷2, 「滿浦沈僉使【思遜】挽詞【二首】」 제1수.

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 “사람의 도모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 아니었으나 / 천도는 논하기 어려움을 어이하라.[人謀非不至, 天道奈難論.]”라며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였다. 제2수에서는 개인적 비탄이 드러나지만, 인용한 제1수에서는 그 죽음의 공적인 의미를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연작시를 이용하여 한 수는 망자의 덕업과 그 죽음의 공적인 의미를 말하고, 다른 한 수는 개인적 관계와 자신의 비탄을 토로하는 방식은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金監司【希壽】挽詞【二首】」는 제1수에서 망자와의 마지막 만남과 이별의 슬픔을 말하고 제2수에서 그가 임금의 지우를 입은 일과 뛰어난 필적을 남겼음을 칭송하였다. 「哭金子誠【克幅】○二首」는 제1수에서 김극필의 복된 삶과 훌륭한 가문을 칭송하고, 제2수에서 그가 아팠을 때 문병 가지 못한 미안함을 읊었다. 「領相挽詞【三首】」는 제1수에서 영상의 업적을, 제2수에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제3수에서는 은거를 꿈꿨던 영상의 志趣를 이야기했다. 가족·친지에 대한 만시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된 예가 있다. 「哭內兄成應卿【名夢井 時爲忠清兵使】」은 첫째 수에서 옛날에 만났던 일과 이번엔 만남이 어긋난 일을 이야기하고, 둘째 수에서는 그의 충과 효를 말하였다.

한편 지인의 가족에 대한 만시에서는 고인의 평소의 덕, 그리고 가문의 융성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성에 대한 만시에서 이행은 친정과 시집 두 가문의 성대함과 함께 그 婦德을 칭양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예컨대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 별열의 가문으로 시집왔다네. / 남편에게 순종하여 집안 화목하게 하고 / 선행을 쌓아서 많은 자손을 보았네.[自出衣冠族, 于歸閨閥門. 宜家順夫子, 積善見諸孫.]”³⁵⁾라고 한 것이나 “친정과 시댁 두 가문 짝할 데 없고 / 맹모삼천

교육에 경사가 열렸네. / 향년 이미 고령을 넘겼고 / 자제들이 번갈아
정승에 올랐네.[兩大門無敵, 三遷慶有開. 享年踰耄耄, 生子互台槐.]”³⁶⁾
라고 한 것이 전형적이다. 해당 인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칭송의 말로 만시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지기였던 박은의
모친에 대한 만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는 슬픔과 영예가 다르고	人事哀榮異
천심은 화와 복 내려줌이 치우쳤네.	天心禍福偏
살아선 범방의 어머니 되고	生爲范滂母
죽어선 백란의 언덕에 묻히는구나.	死托伯鸞阡
이와 같으매 도리어 유감없나니	如此還無憾
훗날 그 덕이 세상에 전해질 테니.	他時亦可傳
당 위에 노인 한 분 남아계시니	升堂餘一老
상여 따르며 갑절로 눈물 뿌리네.	執紼倍潸然 ³⁷⁾

박은과 같은 훌륭한 선비를 일찍 데려간 것은 천심이 불공평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박은은 곧은 말을 하다가 죽어야 할 곳에서 죽은 것이
다. 이행은 박은의 모친을 范滂의 어머니라 하여 그 덕을 칭송하였다.³⁸⁾
伯鸞은 한나라 梁鴻의 字이다. 양홍은 그 아내 孟光과 霸陵山에서 밭을

35) 卷2, 「李同知【安世】夫人挽詞」.

36) 卷2, 「沈贊成母氏挽詞【二首】」 제1수.

37) 卷2, 「朴仲說母氏挽詞」.

38) 後漢의 范滂은 청렴과 지조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黨錮의 화에 연루되어 체포되
게 되었는데, 같이 도망하자는 郭曄의 청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면서 모친을 영결
하였다. 이때 그의 모친이 “네가 지금 李膺이나 杜密과 나란한 명성을 얻었으니
죽더라도 또한 무엇을 아쉬워하겠느냐. 이미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서 다시 오래
살기를 구한다면 둘을 겸할 수 있겠느냐.[汝今得與李杜齊名, 死亦何恨! 既有令名,
復求壽考, 可兼得乎?]”라며 위로하였다. 《後漢書 卷97 黨錮列傳 范滂》

갈며 서로 공경하며 살았다. 이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게끔 격려하였음을 칭송하고, 죽어서는 다행히 남편과 함께 묻혔다는 말로 땅자를 위로하였다. 생과 사가 이러하다면 오히려 유감이 없다고 하였다. 그 행적이 훗날까지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들과 함께 모친 역시 승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다. 역시 지인의 모친에게 써준 다음 시와 비교할 만하다.

대대로 가문이 성대하였고	赫世門闌大
집안을 화목하게 하여 부덕이 온전하였지.	宜家婦德全
장수하여 구십을 넘겼고	遐齡逾九十
남은 경사를 증손 현손에게서 보리라.	餘慶見曾玄
선영으로 운구해 반장하노니	返葬從先葬
새 무덤이 곧 옛 무덤 길이라.	新阡卽故阡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 점 유감없으니	哀榮無一憾
여사의 덕 분명 세상에 전해지리라.	女史定流傳 ³⁹⁾

이 시의 애도 대상인 이세정의 모친은 현달한 가문 출신으로 많은 자손을 얻고 아흔의 장수까지 누린 인물이다. 여한 없는 죽음이라 딱히 비통함을 표현할 필요 없이 칭송으로 마무리했다. 한 점 유감없는 삶이며, 그 덕은 또한 후대까지 전해질 것이다. 미련의 이 표현은 앞의 박은 모친에 대한 시의 경련과 그 뜻이 비슷하다. 그러나 앞 시의 해당 구절에 쓰인 ‘還’과 ‘亦’이라는 글자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일찍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도리어’ 유감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행적과 덕이 훗날에도 ‘또한’ 길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

39) 卷2, 「李參議【世貞】母氏挽詞」.

다. 두 만시에 비슷한 표현을 썼으나 이세정 모친에게는 칭송의 의미로, 박은 모친에게는 현실에서 겪은 고통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 이세정 모친의 덕은 가문 내에서 현양할 부덕을 뜻하는 반면 박은 모친의 ‘可傳’할 만한 덕은 가문을 넘어서 사대부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다르다.

이상 살펴본 작품들은 반정 이후에 창작된 만시들로, 부탁을 받아 지었거나 조정의 대신과 명사를 위한 만시들이다. 이러한 시들은 상대의 인품과 공적에 대한 칭송이 위주가 되며, 公的인 태도로 망자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논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으로 박원종에 대한 만시를 살펴보았다. 이 시는 공신으로서의 망자의 위상과 정승이자 장수로서의 활약,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이러한 종류의 시들에서 이행은 망자의 죽음이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백성, 사문, 유림, 임금과 나라에 어떠한 상실을 가져왔는지를 말한다. 친우의 아들이었던 심사손에 대한 만시에서는 그의 죽음이 경술함의 탓이라 나무라면서도 명신을 잃은 대궐의 비통함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한 슬픔을 표현했는데, 이처럼 연작시의 각 수에서 공적/사적인 차원의 애도를 각각 표현하는 방식이 활용된 예들도 있다. 한편 지인의 가족에 대한 만시에서는 고인의 덕과 가문의 융성함을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박은의 모친에 대한 만시에서는 망자를 범방의 어머니에 빗대면서 사대부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현양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3. 특별한 풍모와 개인적 인연의 회고

만시는 죽음에 대한 시인 동시에 삶에 대한 시이기도 하다. 그 죽음을 슬퍼하고 위로하기에 앞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으며 어떠한 인물 인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앞서 2절에서는 망자의 덕과 공적을 칭송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인이 기억하는 망자의 특별한 풍모와 인연을 회고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행 만시의 주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그 풍모를 언급할 수 있지만, 대체로 상대방과 친밀한 사이였을 경우 그 모습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또, 오래 사귄 사이일수록 그 인연이 더 애뜻하게 그려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귄 기간이 짧았거나 한두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더라도 그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면 만시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沈克孝에 대한 만시이다.

영예도 욕됨도 없고 또 바라는 것도 없기론
사람들 말하길 지금 세상의 심은후라네.
골짜기 하나로 천하의 반을 진작 가볍게 여겼거늘
울정을 어찌 악양루와 바꿀 건가.

無榮無辱又無求
人道當今沈隱侯
一壑久輕天下半
栗亭寧換岳陽樓

그대 청학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청산에 청학의 자취 완연하구나.
백발의 도인은 짝할 이 없어
봄날 술잔 잡으니 눈물이 샘솟네.

君騎青鶴上青天
青鶴青山迹宛然
白首道人無伴侶
青春把酒淚如泉⁴⁰⁾

40) 卷1, 「哭沈百源【二首】」.

심극효는 본관은 豐山, 자가 百源이며, 大觀齋 沈義의 종형이다. 남산에 栗亭을 짓고 은거하여 栗亭居士 또는 靑鶴老仙으로 자호하였다. 『용재집』에는 이행이 중앙절에 여러 벗들과 남산에 있는 심극효의 집에 모여 그의 시에 차운한 작품⁴¹⁾이 있다. 함께 모인 이는 權敏手(자 叔達), 安處誠(자 誠之), 洪彦邦(자 君美) 등⁴²⁾이었다. 사화 이후의 시로 보이며, 권민수와 안처성의 몰년이 1517년이므로 이들의 교유 시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또, 이행이 심극효에게 碧桃와 葵花를 나눠줄 것을 청하는 시⁴³⁾가 그 뒤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행은 심극효를 ‘老仙’으로, 자신을 ‘道人’으로 지칭하고 있다. 권2에는 삼월 삼짇날 이행의 집이 있던 청학동에서 南袞(자 士華), 金世弼(자 公碩), 권민수, 안처성, 李耜(자 次野), 洪언방, 蘇世良(자 元友), 심극효, 曹伸(자 叔奮)과 함께 답청하고 지은 시⁴⁴⁾가 있다. 또, 권3에 이행이 심극효의 시에 차운한 작품⁴⁵⁾이 있는데 두 사람의 깊은 우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시의 제1수 끝에서 이행은 “쓸모없는 이 몸 그대와 사생의 벗 맺었으니 / 청학이 근래 노선을 저버렸다네.[散材相托同生死, 靑鶴年來負老仙.]”라고 읊고, “백원이 평소에 자신을 청학노선이라고 칭하였는데, 청학동이 지금 타인의 차지가 되었으므로 이를 희롱한 것이다.[百源常自稱靑鶴老仙, 靑鶴今爲他人所占, 故戲之.]”라고 부기해 놓았다. 새로 청학동의 주인이 된 자는 바로 이행 자신이다. 이행은 또 심극효가 죽은

41) 卷1, 「重九 與叔達誠之君美仲舉 會于沈百源家 次百源韻」.

42) 같이 모인 이는 叔達, 誠之, 君美, 仲舉인데 시기 仲舉라는 자를 쓴 인물로는 李綱(1479-1523)이 있다. 『용재집』에서는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43) 卷1, 「寄栗亭居士乞碧桃葵花【二首】」.

44) 卷2, 「三月三日 與士華公碩叔達誠之次野君美元友百源叔奮 踏靑于靑鶴洞 翌日遂有作」.

45) 卷3, 「次百源韻【二首】」.

뒤 「過沈百源栗亭」(권1)을 지어 그리움을 표출하였는데, 주인은 없고 복사꽃만 피어 있는 율정을 지나며 배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위 만시의 제1수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담겨 있다.

上舍 심극효는 종종 때 도성에 은거한 인물로, 남산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에 栗亭이 있었는데 매우 좋아서 한때의 이름난 집으로 여겨졌다. 한 재상이 와서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새집과 그것을 바꾸자고 하였다. 심극효가 웃으며 말했다. “비록 천하의 반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악양루를 보태 준다고 하여도 바꾸지 않을 것이외다.” 韓亨允 相이 농담을 잘하였는데, 귀에다 대고 말하였다. “정말로 천하의 반에다 악양루를 더하여 바꿔준다면 자네는 반드시 힘써서 교역을 성사시키게나.” 당시 사람들이 호사로 전하였다. 심극효가 죽자 용재가 시를 지어 애도하길 “한 골짜기가 천하의 반을 당해내는데 / 율정을 어찌 악양루와 바꾸겠나.”라고 하였다.⁴⁶⁾

이행은 일화를 이용하여 심극효의 욕심 없고 소탈한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려냈다. 榮辱의 벼슬길에서 한 발짝 물러난, 진정한 은자로서의 풍모를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제2수는 그가 평소에 靑鶴老仙으로 자처했던 일을 소재로 했다. 노선은 청학을 타고 푸른 하늘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가 머물던 산골짜기는 여전히 질푸르다. 최호의 「황학루」를 연상시키는 구법이다. 거기에 靑鶴을 두 번, 靑天, 靑山, 靑春을 한 번씩 써서 스무자 가운데 靑자를 다섯 번이나 썼다. 仙侶를 잃은 화자는 학이 떠나버린 푸른 산속에서 홀로 술잔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신선처럼 살

46) 李濟臣, 「清江詩話」(《大東野乘》, 『清江先生鯢鱗瑣語』). “沈上舍克孝, 中廟朝城隱, 家終南下. 有栗亭甚好, 一時以爲名家. 有一宰相來飲樂之, 欲以新宅換之. 沈笑曰: ‘雖半割天下, 添價以岳陽樓, 殆不可換耳.’ 韓相亨允善戲謔, 附耳語曰: ‘實以天下半添岳陽而換之, 則君之交須勉成之.’ 時人以好事傳. 及沒, 客齋以詩挽曰: ‘一壑自當天下半, 栗亭寧換岳陽樓.’”

다간 심극효의 풍모를 이제 볼 수 없음과 그와 짝하여 도인과 같은 흥취를 누렸던 시절이 끝났음을 애도하는 것이다. 두 수 모두 의례적인 만시의 느낌이 전혀 없으며, 둘째 수는 疊字를 사용하여 경쾌한 운율감마저 느껴진다. 벗은 저 하늘로 돌아갔으니 그 죽음이 슬픈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나는 짝 잃은 처지가 되었다. 푸른색의 이미지에 봄술이 담긴 잔, 샘물 같이 솟는 눈물의 맑은 이미지가 더해져서 서러운 마음이 청량하게 표현되었다. 이행은 이 시 외에 「癸未月日遣告于沈百源靈柩」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작품은 위 시와 달리 만시의 전형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심극효에게 써준 만시는 평소의 깊은 교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달리 짧은 만남의 기억을 소재로 한 만시도 있다. 다음은 영의정을 지낸 宋軼(1454-1520)에 대한 만시이다.

예전 남산의 댁에서 뵈올 제	昔謁南山第
매화가 한창 가지에 가득했지.	梅花正滿枝
짧은 시를 한 번 감상해 주셨고	小詩蒙一賞
큰 술잔은 또 사양키 어려웠지.	大爵亦難辭
손꼽아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데	屈指無多日
마음 아프네, 이 일을 어이하리오.	傷心奈有斯
풍류에다 아량까지 지니셨건만	風流兼雅量
끝내 다시 몇 사람이나 알아주리오.	端復幾人知 ⁴⁷⁾

송일은 1513년 영의정에 올랐고 礪原府院君에 진봉되었다. 그러나 일 년도 못 되어 貪汚하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이미 영

47) 卷2, 「宋領相【軼】挽詞」.

의정 직을 내놓았지만 시에서는 영상으로 지칭하였다. 망자의 마지막 벼슬이기 때문이다. 송일은 성종 대부터 벼슬한 조정의 고위 대신이었으나 만시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대신 이행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했던 날의 기억을 펼쳐놓고 있다. 그 기억 속에는 남산의 집, 가지 가득 매화가 핀 이른 봄, 이행이 바친 짧은 시⁴⁸⁾, 은퇴한 정승이 직접 따라 준 큰 술잔이 있다. 또 뵈 날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분명 이 노인의 풍류와 아랑을 흠뻑 느꼈건만 세상은 그의 권세와 지위만을 보았으리라. 그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 풍모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음을 안타까워 한 시다.

망자의 힘겨운 삶을 소재로 한 만시도 있다. 다음은 堂兄 李荏을 곡한 시다.

예부터 궁한 선비는 있었지만	自昔有窮士
형과 같이 몹시 심한 경우는 없었네.	無如兄最偏
초가지붕에 새는 비 어찌 피하리오.	茅茨寧免漏
죽으로 끼니 잇기도 매양 걱정이었지.	饘粥每憂煎
장례 도구도 친족에게 의지하였고	葬具倚親族
남긴 유산 한 톨의 전답도 없네.	遺資闕寸田
괴로운 삶 여든이 넘도록	辛勤過八十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구나.	一日未安眠 ⁴⁹⁾

48) 『용재집』 권1에 수록된 「謁宋相公【軼】座上口號」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상국께서 성 동쪽 깊이 집 지으시고 / 다만 매화와 대나무만을 지음으로 삼았네. / 아름다운 흰 꽃송이에 뽀뽀한 푸른 줄기 / 이 모두가 초탈한 태곳적 마음일세.[相國城東卜築深, 只將梅竹作知音. 盈盈白蕊森森碧, 共是翛然太古心.]”

49) 卷2, 「哭堂兄李監役【荏】」.

이 시는 마치 삶에 대한 애도와 같다. 무언가 위로할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신고의 삶을 나열한 것이 전부이다. 세상에 형과 같이 곤궁한 선비는 없었다고 하며 함련과 경련에서 그 정상을 구체적으로 보였다. 살아있을 때 극도로 궁핍하였고, 죽은 뒤엔 장례 치를 도구조차 없다. 그의 삶에 대한 총평은 여든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망자의 인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죽음에 대한 애도도 없다. 이행의 만시 중에 이러한 진술이 나타난 것은 이 시가 유일하다. 망자의 삶을 그대로 읊은 것만으로도 구슬픈 마음이 들게 한다.

한편 아래 작품은 특별한 개인적 인연으로 인해 창작한 만시이다.

곤궁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돌아보았나.	窮厄何人顧
평범한 백성이 선비들보다 낫구나.	凡流勝士流
바둑은 내 적수가 되지 못했지만	與吾碁不敵
주량은 그대가 더 많은 것 알았지.	知爾酒爲優
옛날 서문 길에서 헤어질 때에	昔別西門道
해질녘 서로 붙잡고 슬퍼했었지.	相扶落日愁
왕손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으니	王孫有如此
밥 한 그릇의 은혜를 다시 누가 갚을까.	一飯更誰酬 ⁵⁰⁾

趙生이라는 늙은 官奴의 죽음에 대한 만시 2수 중 둘째 수이다. 갑자년에 이행은 충주에 유배되어 있다가 박은의 논사에 연루되어 다시 고문을 받고 함안으로 이배되었다. 이때 조생의 집에 우거하였는데, 늘 곁에 있으면서 이행을 돌봐주었다고 한다. 이행은 그의 사람됨이 진실하였고 바둑을 꽤 잘 두었으며,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50) 卷6, <海島錄>, 「哭趙生【二首】」 제2수.

장만해 자신을 위로해주었다고 하였다. 또, 가을에 자신이 포박되어 한 양으로 압송될 때 조생이 술상을 차려 놓고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한다. 이행은 자신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역시 늙었으니 보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며, 선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후 거제도에서 조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시를 쓴 것이다.⁵¹⁾

이행은 첫째 수에서 자신이 함안에서 그의 집에 우거했던 일, 이별과 그의 죽음을 말하고 “풀어서 부의로 줄 참마도 없기에 / 고개 돌리니 눈물이 마구 쏟아지네.[更無驀可脫, 廻首涕橫斜.]”라며 슬픔을 표출했다. 공자가 위나라를 지나며 옛날 묵었던 집 주인의 상에 참마를 벗겨 부의를 한 고사를 인용했다. 짧은 인연이지만 묵었던 곳의 주인에게 진실한 슬픔을 표하는 것으로, 절묘한 전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은 그런 성의조차 표할 수 없어 한없이 슬프다고 하였다. 인용한 제2수에서는 자주에서 전하고 있는 사연을 그대로 담았다. 바둑과 술에 관한 언급은 그의 진솔한 성품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韓信의 고사를 인용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귀양살이 중인 죄인이므로 그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이 시를 써서 남긴 것이 그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 된 셈이다.

조생은 吏屬이나 良人도 아니었고 지극히 낮은 신분의 인물이었으나, 이행은 그의 보살핌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갚지 못한 미안함을 시로나마 표현하고자 했다. 조생의 장례엔 만장도 없었겠지만, 오롯이

51) “余去歲謫咸安，主趙生家。趙生，老官奴也，爲人甚真，頗解棋。家貧，亦時辦酒饌，欲以娛余者百端，不敢須臾離去。至秋，余被拘上道，趙於路上置酒，扶持痛哭，殆不可忍言。趙已年老，余又事在不測，此豈望報者耶。余嘗謂求之士人中，亦未多得。今聞其歿，痛可知也。詩以哭之，庶抒余意云。”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다. 다음 시는 그 죽음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미안함이 창작 동기가 된 것이다.

인생에 누군들 죽지 않으랴만	人生孰無死
객지에서의 죽음이라 더욱 슬프네.	客死尤可悲
네 죽음은 실로 나 때문이니	汝死實由我
내 마음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我懷誰得知 ⁵²⁾

李永元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전 박은과 함께 잠두봉 아래서 뱃놀이를 할 때 같이 즐겼던 인물이다.⁵³⁾ 『용재집』에는 「題李永元所藏秋山圖」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挹翠軒遺稿』에도 「李永元將返湖南 以畫四幅求詠 與擇之同賦」라는 시가 나온다. 호남의 선비로서 이행, 박은 등과 젊은 시절부터 교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1521년 이행이 원접사로 의주로 갈 때 아마 함께 시나 주고받을 생각으로 동행했던 모양이다. 이행이 저토록 미안해하는 것으로 보면 먼 길을 주저하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여러 번 권했는지도 모르겠다. “我懷誰得知”라는 말로 슬프고 미안한 마음을 여운 있게 표현하고 있다.

위 작품들은 죽은 자의 특별한 풍모를 그려내는 데 중점을 둔 만시들이다. 그러한 풍모와 함께 자신과의 깊은 교분, 또는 인상적인 만남의 기억을 담아냈다. 평소 교분이 깊었던 심극효의 죽음을 당하여 이행은 두 편의 애도시와 한 편의 회고시를 남겼다. 시 속에서 저자는 그의 무욕하고 신선과 같은 삶을 구체적인 일화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52) 卷8, <東槎錄>, 「李永元從余到義州病死 詩以哀之」

53) 『용재집』 卷4, <蠶頭錄>에 「同遊李永元 得近律一篇 有今日蠶頭飲 當年赤壁遊之句 遂各占韻」이란 시가 수록되어 있고, 『음취헌유고』에도 「同遊李永元 得近律一篇 有今日蠶頭飲 當年赤壁遊之句 各占韻」이란 시제가 보인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은퇴한 영의정 송일에 대한 만시에서는 어느 하루의 만남을 통해 느낀 망자의 풍류와 아량을 그려냈다. 또, 당형 이임의 만시는 망자의 힘겨운 삶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처연한 심정을 느끼게 하였다. 한편 유배지에서 자신을 돌봐준 관노 조생에 대한 만시에는 망자의 애절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과 그것에 보답하지 못한 미안함이 진실하게 드러나 있다. 원접사 수행 길에 자신을 따라왔다가 객사한 벗에 대한 죽음 역시 미안함과 착잡함을 여운 있게 읊은 작품이다. 망자의 독특한 풍모 및 개인적 인연을 회고하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은 그 내용이 참신하고 진솔한 만큼 이행의 애도시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채로운 시편들이라 하겠다.

IV. 이행 애도시의 의식 지향

1. 벗의 상실로 인한 적막감의 표출

이행은 갑자사화로 인해 수많은 벗의 죽음을 겪었다. 1520년 작인 「八月十八夜」에서 “평소의 벗들이 모두 세상 떠나고 / 백발 되어 그림자와 몸뚱이만 서로 보고 있구나. / 바야흐로 달 밝은 밤 높은 누대에서 / 처량한 것대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平生交舊盡凋零, 白髮相看影與形. 政是高樓明月夜, 笛聲淒斷不堪聽.]”⁵⁴⁾라고 한 데서 그의 상실감을 엿볼 수 있다. 사화 이후로 이행은 줄곧 자신의 곁에 남은 벗이 없다고 느낀 듯하다. 벗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 시절의 상실감을 떠올렸을 법하다. 특히 유배지에서 함께 고초를 겪고 살아남은 벗이

54) 卷7, 「嶺南錄」.

세상을 떠날 때면 그 감회가 더 컸을 것이다. 다음은 洪彦邦(자 君美)에 대한 만시 4수 중 첫째, 둘째, 넷째 수이다.

直卿의 무덤가 나무 벌써 아릅드리 되었고
大曜의 산 정자 빈터 된 지 이미 오래인데
백발의 몸으로 또 君美의 부고 들으니
옛 친구인 내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나.

直卿宰木曾成拱
大曜山亭久已虛
白首又聞君美訃
故人情緒果何如

갑자년 지금 二紀 남짓 지났는데
사람들 모두 涵虛를 우러러 경모하였지.
이로부터 그 典刑에 다시 기댈 수 없으니
의연히 서 있는 정자를 슬피 바라본다네.

甲子今垂二紀餘
士林傾倒仰涵虛
典刑從此還無托
悵望名亭只自如

헤어진 지 지금 이미 십여 년
멀리 떨어져 꿈속에서나 만났었네.
우환 속에서 반년을 사귀었으나
평생의 사귀 이만한 이 누구리오.

乖離今已十年餘
契闊還成一夢虛
半歲相從憂患裏
平生交道有誰如

홍언방은 洪貴達(1438-1504)의 둘째 아들이다. 장남 洪彦昇과 삼남 洪彦忠(1473-1508)은 갑자년 당시 이행이 거제도에서 교유했던 벗인데, 특히 홍언충과 교분이 깊었다. 첫째 수의 직경은 홍언충의 자, 대요는 홍언승의 자이다. 홍언방의 부고를 듣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형제들을 떠올리고, 벗이었던 삼형제를 차례로 떠나보내는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하였다. 둘째 수에서는 형제들의 아버지인 홍귀달의 풍모를 회고했다. 홍귀달은 사화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 갑자년에 왕명을 거역한 죄로 교살되었다. 마지막 수에서는 비록 사귀는 짧았고 헤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지만 우환을 나눈 벗이니 평생의 交道가 여기에

있다 하였다. 한 명에 대한 만사에서 역시 친우였던 그 형제들과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회고까지 담았다. 상실감의 연원이 그만큼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벗에 대한 만사에서 이행은 벗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세상에서 느끼는 적막감을 자주 표출하였다. 장년기에도 많은 벗들이 있었고 환로에서 사귀 동료들도 있었지만,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러한 상실감이 익숙하게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성남에서 헤어질 적에	往歲城南別
갈림길에서 다시 한 잔 술 마셨지.	臨分更一卮
돌아온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歸來未數月
갑자기 길이 세상을 떠났네.	奄忽見長辭
친구라야 끝내 누가 남았나.	故舊終誰在
내 생애를 이미 알 만하구나.	生涯已可知
서풍에 해로의 노래 실려 오니	西風吹薤露
처량하여 글을 이룰 수가 없네.	悽斷不成詞 ⁵⁵⁾

김희수(1475-1527)는 이행보다 세 살 연상이지만 1507년(중종2)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행은 그와의 마지막 만남을 회고하고 故舊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자신의 생애를 알 만하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제2수에 망자에 대한 칭송과 위로를 담았고, 인용한 제1수에서는 자신의 비탄을 표출했다.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해에 趙舜(1465-1527)에 대한 만시를 지었는데, 여기서도 “옛 벗들 이제 얼마나 남았나. / 내 생애 더욱 쓸쓸해졌네.[故舊今餘幾,

55) 卷2, 「金監司【希壽】挽詞【二首】」 제1수.

『吾生轉寂寥.』⁵⁶⁾라고 하였다. 1527년이면 이행 나이 오십 세 때다. 노년이 되어 가까운 벗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행의 시에서 이러한 상실감은 젊은 시절부터 줄곧 나타났던 것이다. 일찍이 김천령에 대한 만시(1503년)에서 이행은 “벗들이 세상 떠나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 / 이 생애 누구와 더불어 남은 해를 보낼까.[朋舊凋零今略盡, 此生誰與送殘年.]”⁵⁷⁾라고 읊었다. 이러한 탄식이 「八月十八夜」를 거쳐 장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金末文에 대한 만시에서는 “평소의 벗들 모두 떠나버려 / 백발의 몸으로 홀로 마음 아파하네.[平生故舊盡, 白首獨傷情.]”⁵⁸⁾라고 읊었는데, 정확한 창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용상 장년기 이후의 작품으로 보인다. 領相에 대한 만사(1523년 추정)에서도 “뒤에 죽는 것이 오히려 괴롭나니 / 남은 생을 누구와 함께 하리오.[後死飜爲累, 餘生孰與同.]”⁵⁹⁾라고 하였다. 이행은 「風樹」(권2)에서도 “온 세상에 지음이 없나니 / 누구와 더불어 내 마음 이야기하랴.[知音空海內, 誰與一商量.]”라고 하였는데, 꼭 애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실감을 종종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벗이 모두 떠나가버리고 홀로 남은 적막한 상황에 대한 탄식, 이것은 이행의 애도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탄의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표현은 1503년 김천령에 대한 만시에서부터 나타나며, 이행의 대표작 중 하나인 「八月十八夜」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시선집에 실리며 높은 평가를 받은 「八月十八夜」는 젊은 날의 벗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외로운 심정을 청아하게 읊어낸 작품이다. 시의 표현도 뛰어나지만 사화를

56) 卷2, 「趙留守【舜】挽詞」.

57) 卷1, 「哭金仁老【千齡】○八首」 제8수.

58) 卷2, 「哭金承旨【末文】」.

59) 卷2, 「領相挽詞【三首】」 제2수.

겪은 저자의 실제 경험을 떠올릴 때 그 절실함이 더욱 와닿는다. 그러나 “平生交舊盡凋零, 白髮相看影與形.”⁶⁰⁾이라는 표현은 장년기 이후의 애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 변주되고 있다. 사실 사화가 있기 전에 부친을 대신하여 지은 李均(1452-1501)에 대한 만사에서 이미 “벗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 백발의 몸 뉘와 더불어 지낼꼬[故人零落盡, 白首與誰居.]”⁶¹⁾라고 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보면 이러한 표현 자체는 애초에 ‘절실한 감정’의 소산이었다기보다 하나의 참신한 표현으로 떠올린 것이었는데, 사화를 겪으면서 심상히 쓰던 표현에 무게가 실려 깊은 정감을 자아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餘慶과 가업 계승의 의의 강조

애도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망자에 대한 위로이다. 최재남은 이를 ‘鎮魂’으로 표현하였으며, “사후의 세계에 속하는 죽은 넋을 위하여 목적지에서 편안함을 누리라고 위로하거나 애도자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애도의 층위에 속한다”⁶²⁾고 하였다. 또, 애도시를 짓는 행위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진혼⁶³⁾이라고 보았다. 또한 진혼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둔 애도의 층위에 해당”하며 “죽음 뒤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애도자의 思惟를 반영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⁶⁴⁾ 애도자

60) 이 구절은 본래 杜甫의 「過故斛斯校書莊二首·二」의 “素交零落盡, 白首淚雙垂.”를 점화한 것이다. 또, ‘形與影’은 李密의 「陳情事表」의 “茕茕孑立, 形影相弔.”에 바탕을 둔 표현이다. 이종묵은 이에 대해 점화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였다. (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p.235.)

61) 卷2, 「哭李參議【均○代家君作】」, 제1수.

62) 최재남, 앞의 책, p.42.

63) 같은 책, p.105.

의 슬픔을 표현하는 비탄을 정서나 감정의 측면으로 본다면, 사후의 일을 말하며 망자를 위로하는 것은 이성적 측면, 특히 저자의 生死觀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한 명의 저자가 여러 차례 만시를 쓰다 보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많다. 이행 만시에서 망자를 위로하는 표현을 보면 유사한 진술이 자주 눈에 띄는데, 이는 삶과 죽음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일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두 작품을 예로 들어본다.

예순의 나이 단명이 아니고	六秩年非夭
세 아들의 지위 또한 높다네.	三孤位亦尊
차고 기웁은 본디 운수가 있고	盈虧元有數
화와 복은 본래 문이 없는 것.	倚伏本無門
염교의 이슬은 봄 되어 스러지고	薤露春初謝
무덤에는 또 해가 저무는구나.	泉臺日又昏
가정에 훌륭한 아들과 사위 있으니	家庭賢子壻
오히려 저승의 넋을 위로할 만하다.	猶足慰幽魂 ⁶⁴⁾

존귀한 왕실 가문에서 나시어	系出璿源貴
별열의 가문으로 시집오셨지.	歸從閭閻門
뛰어난 자품으로 올바른 법도 뵈고	義方資宿稟
부녀자의 법도 지켜 세상에서 우러렸지.	內則世共尊
으앙으앙 울음소리 겨우 들었는데	纔聽呱呱泣
문득 혈혈단신 외론 녀 되셨구나.	翻成子子魂
하늘이 응당 무심하지 않으리니	天心應有在
장래의 자손에게서 여경을 보리라.	餘慶看來昆 ⁶⁵⁾

64) 같은 책, p.106.

65) 卷2, 「哭金子誠【克幅○二首】」 제1수.

앞 시는 金克幅에 대한 만시이다. 김극핍은 1530년 김안로에 의해 직첩을 박탈당하고 울분으로 단식하다가 이듬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정, 李沆과 함께 辛卯三奸으로 지목되었으며, 1538년 김안로 실각 후에야 신원되었다. 위 만시의 제2수에서 이행은 그가 아팠을 때 오래 문병 가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고 있으며 그와의 관계를 “榮悴舊同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역시 갑자사화로 유배 생활을 했으며, 이 시기에 이행 또한 김안로 일파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용한 첫째 수는 공적이나 인품에 대한 칭송 없이 전체가 김극핍의 몰락과 죽음에 대한 위로의 말이다. 예순 나이니 그만하면 오래 살았고 아들들의 지위도 높다고 했다. 본래 盈虧에는 운수가 있고 禍福엔 문이 없으니 차분하게 천명을 받아들이자는 말이다. 비록 그대는 쓸쓸히 무덤에 누웠으나 다행히 집안에 훌륭한 자손들이 있어 가업을 이을 테니 죽히 위로가 될 것이란 말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시는 이성언의 부인에 대한 만시인데, 시의 내용을 통해 왕실 집안에서 시집온 여성임을 알 수 있다. “內則世共尊”이라는 표현은 마치 공주나 대비의 덕을 칭송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이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목숨이 다 했다. 그에 대한 위로로서 天心이란 것이 응당 있을 테니 부인의 후손이 복록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 餘慶은 “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는 易의 말에서 나온 표현이다. 망자가 평소에 훌륭한 덕으로 집안을 돌보았으니 그 덕의 공효가 분명히 있으리라는 말이다. 비록 단명하였으나 그 삶이 헛되지 않는다고 위로한다.

이행 만시에서 위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망자가 남겨놓은 것, 즉 가

66) 卷2, 「李僉知【誠彦】妻氏挽詞」.

업을 성취할 후손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자손이 많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면 살아있을 때도 영예로웠을 테지만 죽어서도 걱정이 없다. 자식이 아직 요직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자질이 영민하다면 위로가 된다. 남은 자식이 어린아이라 해도 후사가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망자를 위로하기도 한다. 딸을 키워 사위나 손자를 본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후사가 있기에 그 죽음은 덧없는 것이 아니게 된다. 망자가 생시에 쌓은 덕으로 인해 후손들이 은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위로는 지인의 부모를 위해 쓴 만시에 자주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의례적인 말인 것은 아니다. 이행은 둘째 누이에 대한 만시에서도 “그나마 든든한 건 여경이 이어져서 / 조카들이 모두 훌륭히 자란 것이라네.[所賴仍餘慶, 諸甥總秀成.]”⁶⁷⁾라며 죽은 누이를 위로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남은 가족들의 위안으로 삼았다.

이행의 애도시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발상은 혈맥을 통해 조상의 氣가 계속해서 전해지며, 조상의 蔭德이 가문을 번창하게 한다는 유교적 사고이다. 사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행의 애도시에서는 이러한 발상이 인간사의 허무함과 무상감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기제로서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집안에 아들 있어 餘慶이 장구하리니 / 몸과 사업 모두 부질없다 말하지 마시게.[有子當門餘慶遠, 莫言身事併成空.]”⁶⁸⁾, “다시 사후에 아무런 유감없나니 / 훌륭한 자제에게 가법을 맡겼으니.[更無身後憾, 家法付寧馨.]”⁶⁹⁾와 같은 진술이 대표적이다. 죽음은 분명 슬픈 것이지만 그것은 남은 자들의 슬픔이며,

67) 卷2, 「哭曹二相妹氏【二首】」 제1수.

68) 卷3, 「丁同知【壽岡】挽詞」.

69) 卷2, 「閔觀察使【師騫】挽詞」 제1수.

떠난 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선영에 묻혀 조상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담겨 있기에 이행의 많은 애도시 작품들은 온화하고 화평한 미감을 자아낸다.⁷⁰⁾

어떤 애도시는 망자의 죽음을 위로한다기보다 남은 자제들을 격려하고 그 가문을 축복한다는 취지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일흔 살은 예부터 드문 것인데	七十古來少
여든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었지.	八旬今尙強
어찌 알았으랴 한바탕 꿈을 깨듯	那知一夢覺
문득 백 년 인생 바빠 마칠 줄을.	便作百年忙
善慶이 이에 융성하노니	善慶於斯盛
家聲이 갑자기 그치지 않으리.	家聲未遽央
집안에 훌륭한 자손 이어져	當門仍有子
대대로 높이 날아오름을 보리라.	世世看高翔 ⁷¹⁾

지인의 모친에게 써준 만시이다. 저자와 직접 친분이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그 풍모나 인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다. 앞의 이성언 처와 달리 이 인물은 여든까지 건강히 살다가 문득 세상을 떠났다. 善慶은 선을 쌓아 생겨난 경사, 즉 여경과 같은 말이다. 모친이 쌓은 덕이

70) 이러한 작품들은 사회로 인한 원통한 죽음을 다룬 애도시들과 구별되는 미감을 지닌다. 애도시가 반드시 비탄의 정조를 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게나 애통한 일이지만 월사는 한층 다양한 층위로 접근하여 부러운 죽음으로까지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는 비탄에 젖기도 하였다. 물론 부러움이 비탄의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월사의 만시는 언제나 비탄의 정조 혹은 슬픈 죽음만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벗어나게 만든다.”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挽詩 研究」, 『어문연구』 제71집, 어문연구학회, 2012, p.192.

71) 卷2, 「朴判官母氏挽詞」.

있으니 가문의 명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훌륭한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가문을 빛낼 것이란 송축이다. 비슷한 표현이 다른 작품에도 나타난다. “가업 잇는 것 두 아들의 몫이니 / 積慶이 천추에 이어지리라.[承家歸二子, 積慶在千秋.]”⁷²⁾, “집안에 길이 餘慶이 전하리니 / 훌륭한 자손이 계속해서 나오리라.[傳家餘慶遠, 繼出子孫賢.]”⁷³⁾와 같은 구절들이다. 積慶 역시 여경과 같은 말이다.

훌륭한 자제에 대한 언급은 위로뿐 아니라 칭송의 말에도 나타난다. “백발로 고향을 떠나서 / 청삼을 입고 도성에 들어왔네. / 아들 두면 마땅히 이러해야지. / 세상에 이름난 지 오래로다.[白首去鄉曲, 青衫朝日邊. 有兒當若此, 名世亦多年.]”⁷⁴⁾, “어미 되어 누군들 자식 없으랴만 / 이 같은 자식은 본 적 없어라. / 눈앞엔 한 쌍의 백벽이요 / 천상엔 두 개의 청룡이라네.[爲母誰無子, 如斯見未曾. 眼前雙白璧, 天上兩青綾.]”⁷⁵⁾, “아들 낳아 현달한 것 보았고 / 장수 누려 백 세에 가까웠네.[生兒看顯達, 享壽近期頤.]”⁷⁶⁾, “슬하의 다섯 아들 중 셋이 近侍요 / 근래엔 열흘에 아흐레는 노래하며 즐겼지.[膝下五兒三近侍, 年來十日九歌呼.]”⁷⁷⁾와 같은 시구가 그러한 예이다. 자제에 대한 칭찬은 만시를 부탁한 사람의 효성을 칭양한다는 의미도 있다.

후사와 가업 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망자를 위로하는 방식은 반대로 후사가 없는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의 정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72) 卷2, 「哭金僉正」.

73) 卷2, 「鄭參判【光世】母氏挽詞」.

74) 卷2, 「姜正郎先君挽詞【二首】」 제2수.

75) 卷2, 「沈應教【彥慶】母氏挽詞」.

76) 卷2, 「崔同知【命昌】母氏挽詞」.

77) 卷3, 「任判書【由謙】挽詞」.

누라서 큰 우리 가문을 짝하며	孰竝吾門大
어찌 우리 집 며느리만큼 훌륭하랴.	爭如家婦宜
제례에는 정갈한 제수 차리고	蘋蘩虔祭禮
평소에는 맛있는 음식 올렸지.	甘旨奉平時
여경이 더욱 멀리라 기대했더니	餘慶期逾遠
깊은 병을 끝내 치료하지 못했네.	沈痾竟莫醫
가신 뒤의 슬픔을 어이 견딜꼬	那堪身後慟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膝下更無兒 ⁷⁸⁾

백형수에 대한 만사이다. 큰형 李菴의 아내이며 집안의 宗婦이다. 한 명의 아들, 그도 아니면 시집간 딸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죽음을 위로할 수 있건만 형수는 슬하에 하나의 자식도 남기지 못했다. 평소의 덕에 비하여 그 보답이 빈약하니 ‘身後慟’을 견디기 어려우리라. 이 시에는 위로는 없고 비탄만 있는데, 죽은 형수에 대한 탄식이면서 시인 자신과 남은 가족들의 비탄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는 혈육이 아니라 후사가 없다는 것이다. 金克成의 계모에 대한 만사에서는 “빙례 갖추면 며느리 되는 법 / 아들 있으니 꼭 내 소생일 필요 있으랴. / 종가의 만며느리 예로 집상하고 / 온 고을 사람들이 조문왔다네.[成聘卽爲婦, 有男何必吾. 執喪宗伯貴, 會葬一鄉趨.]”⁷⁹⁾라고 하였는데, 꼭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도 후사가 있다면 위로할 만한 것이다. 후사와 가업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는 이행 애도시에 화평한 미감을 형성해주는 요소이지만, 위 시는 예외적으로 더 깊은 비탄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78) 卷2, 「哭伯兄嫂氏」.

79) 卷2, 「金判書【克成】繼母挽詞」.

V. 맺음말

『용재집』에는 모두 63제 101수의 애도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들은 대부분 만시(만사)로서 ‘~挽詞’, 또는 ‘哭~’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 가운데 후자는 모두 가족이나 친우에 대한 만사이며, 전자는 대체로 의례적이거나 공적인 입장에서 창작한 작품들이다. 전체 작품 가운데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한 애도시는 40편 정도로 파악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520년 이전 作은 갑자사화를 전후로 하여 죽은 벗들에 대한 애도시가 주를 이루며, 1520년 이후의 작품은 장년기의 벗이나 동료 관원들, 지인의 가족에 대한 만시들인데 특히 1520년대 중반 이후의 시가 많다.

이어서 이행 애도시의 주된 내용을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사화기의 원통한 죽음을 대상으로 한 애도시이다. 갑자사화를 전후한 시기 이행은 그 자신 유배와 고문으로 고초를 겪었을 뿐 아니라 많은 벗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때 지어진 애도시들에는 天道를 의심하게 만드는 죽음에 대한 강한 비탄이 담겨 있다. 벗의 죽음에 임해 쓴 만시에서는 비통한 심정을 직서하는 방식이 나타나며, 유배 중이던 시기에 쓴 애도시들에서는 망자의 곧고 깨끗한 성품을 부각하거나 사화 중의 체험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반정 이후 작품들로서 망자의 功績에 대한 칭송이 위주가 되는 작품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저자는 公的인 태도로 망자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는데,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임금과 나라, 유림과 사문,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죽음이 어떤 상실을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인의 가족에 대한 만시들은 고인의 덕과 가문의 융성함을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박은의 모친에 대한 시에서는 고인

을 범방의 어머니에 빗대며 사대부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현양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차별점이 확인된다. 세 번째는 죽은 이의 특별한 풍모와 개인적 인연의 회고를 담은 시들이다. 평소 교분이 깊었던 인물에 대해서는 살았을 적의 일화를 이용하는 등 그의 인품을 생생히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 인상적이었던 짧은 인연을 소재로 쓴 만시도 있으며, 고인의 힘겨웠던 삶의 실상을 그대로 풀어놓은 시도 있다. 유배지에서 자신을 돌봐준 늙은 관노의 죽음을 다룬 시는 그 감정이 특히 절실하다. 이 유형의 시들은 진솔함과 참신성의 측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끝으로 이행의 애도시에 나타나는 의식 지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해보았다. 하나는 개인적 비탄의 표출 양상이다. 이행은 1503년 가까운 벗이었던 김천령에 대한 연작 만시에서 “벗들이 세상 떠나 이제 거의 없어졌으니 / 이 생애 누구와 더불어 남은 해를 보낼까.[朋舊凋零今略盡, 此生誰與送殘年.]”라고 읊었으며, 그의 대표작 「八月十八夜」(1520년)에서도 “평소의 벗들이 모두 세상 떠나고 / 백발 되어 그림자와 몸뚱이만 서로 보고 있구나.[平生交舊盡凋零, 白髮相看影與形.]”라고 하였다. 벗들이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은 적막감을 토로하는 이러한 방식은 장년기의 작품들에서도 반복, 변주되면서 이행 애도시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餘慶과 가업 계승의 의의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행은 훌륭한 자제가 있어 가업을 이을 것이며, 고인의 덕으로 후손들이 여경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로 망자를 위로한다. 이는 혈맥을 통해 조상의 氣가 계속해서 전해지며, 조상의 蔭德이 가문을 번창하게 한다는 유교적 사고이다.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生死觀이 이행의 시에서는 인간사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행 애도시에 온화하고 화평한 미감

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후사 없이 죽은 경우 깊은 비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이행의 애도시는 그 내용과 창작방식에서 여타 사대부 문인들의 만사와 많은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공적인 태도로 상대의 공업과 인품을 칭송하는 것이나 고인의 특별한 풍모를 부각하면서 개인적 인연을 회고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만사의 창작방법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범주를 설정한 것은 그러한 범주 안에서 이행의 애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각 작품들의 완성도와 참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이행 만사에 자주 나타나는 “~를 위해 통곡한다/슬퍼한다”라는 표현은 공적인 태도로 죽음의 의미를 사유하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식이다. 또, 심극효와 송일에 대한 만사, 조생에 대한 만사는 내용의 참신함과 감정의 극진함이 특히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박은 어머니에 대한 만사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한편 갑자사화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은 이행의 애도시에 다른 시대의 작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 이행 애도시의 의식 지향 가운데 상실감과 적막감을 논하였는데, 이는 애도시뿐 아니라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관류하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인간이 만든 사회에 의한 부조리한 죽음이면서 그 개인으로서는 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대하는 정서적 태도의 하나인 것이다. 사화 이후 이행 자신은 언제나 세상과 화해하고자 했다. 가업의 성취와 여경을 강조하는 태도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통해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살았을 적의 덕이 후세에 무궁히 전하리라는 말은 위로를 위한 형식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바람이기도 한 것일 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

은 곳의 상실감과 적막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는 결국 백발로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자신을 거둬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행 애도시의 성취가 조선전기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士禍라는 현실적 맥락이 당대인의 문학 및 의식세계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섬세한 고찰이 요구될 것이다.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李濟臣, 「清江詩話」(《大東野乘》, 『清江先生鯁鯢瑣語』), 한국고전종합DB.
- 李 荇,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종합DB.
- 許 筠, 『惺叟詩話』, 한국고전종합DB.
- 김기림, 「용재 이행의 영사문학과 그 의의」, 『대동한문학』 제10집, 대동한문학회, 1998, pp.263-284.
-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문제 - 조선후기 만시의 예술성과 인간미 -」, 『한국한시연구』 제3집, 한국한시학회, 1995, pp.49-80
- 오세옥, 「한국문집총간 『송재집』 해제」, 한국고전종합DB, 1991.
- 유암천, 「容齋 李荇의 詠物詩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제5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pp.149-182.
- 이명희, 「月沙 李廷龜의 輓詩 研究」, 『어문연구』 제71집, 어문연구학회, 2012, pp.179-202.
- 이재숙, 「容齋 李荇의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 이창희, 「용재이행(容齋李荇)의 사행시고(使行詩攷)」, 『한국어문교육』 제1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86, pp.151-173.
- _____, 「용재 이행의 제화시 소고」, 『어문논집』 38권 1호, 안암어문학회, 1998, pp.113-132.
-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한희숙, 「연산군대 盧庵 鄭希良의 現實認識과 그 변화」, 『한국인물사연구』 22, 한국인물사연구회, 2004, pp.191-221.

Abstract

A Research on Elegies of Yongjae Yi Haeng

Jang, Jin-youp

This research approaches the elegies (哀悼詩) of Yongjae Yi Haeng, en route to reading his classical Chinese poetry. There are 101 verses under 63 titles of elegies in Yongjaejip; most of these poems are mansi (挽詩: condolatory poetry), and are entitled “~ mansa (挽詞: condolatory words)” or “gok (哭: mourning) ~”.

First, main texts of the elegies are categorized and probed in three. First are the poems that deal with bitter deaths during sahwa (士禍; the purge of literati); a sense of strong resentment on the unfair deaths that makes one question the Heaven's way flows throughout these works. The expressions seek to emphasize the noble nature of the dead, or accurately describe the experiences during sahwa. Second are the poems that feature praise on the dead's contributions written after Chungjong's Restoration to Righteous Governance. Here, the writer displays an official attitude - stressing what kind of loss one's death brought to the king and the country, and to the people and the literati. Also, in elegies written for an acquaintance about their family member, Yi Haeng lauds the virtue of the passed and the prosperity of the family. Third are the poems about distinguished features and memories of personal connections. These poems are especially valuable in their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Next, the aim of Yi Haeng's elegies are discussed in two aspects, with the first being the expressions of personal grief - which is especially visible on elegies about his friends. Yi Haeng expressed his sorrows through lamenting his loneliness after all his friends have left. Second is the emphasis on the good fortune and the achievements of the

family's trade. He consoles the passed by saying that their descendants would benefit from their virtues, and that an outstanding heir would assume the family's trade. While this corresponds to the universal view on life and death based on Confucian values, Yi Haeng actively uses it to overcome the sense of meaninglessness in his elegies. This idea adds a temperate and peaceful aesthetic to his elegies.

The unique historical situation called Kapchasahwa (The Kapcha[1504] Purge of Literati) endowed Yi Haeng's elegies with distinctive trait, setting them apart from the authors of different periods. The sense of loss and loneliness from losing mates is a sentiment that pierces through his literature in general; further discussions are warranted on what meaning the accomplishments of Yi Haeng's elegies have on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early Chosŏ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in deliberating how the real life context of sahwa is related to the literature and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then.

Key Words : Yongjae, Yi Haeng, elegy, mansi, mansa, Kapchasahwa

장진엽

소속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전자우편 : apricity@sungshin.ac.kr

이 논문은 2022년 04월 14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